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4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이 진 희

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4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이 진 희

영상컨텐츠 시청방식(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도구적 소통·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승 관

이 논문을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이 진 희

이진희의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윤 석 민 (인)

부위원장 이 준 웅 (인)

위 원 박 승 관 (인)

국문초록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상컨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집에 가서 TV 를 켜던 시절은 지났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주머니에서 미디어 기기를 꺼내 TV 컨텐츠 이상의 영상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가족 커뮤니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구성원의 공동여가활동으로 여겨지던 영상시청에 변화를 불러와 가족 공동시청보다 개인 단독시청으로 미디어를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영상컨텐츠 시청방식의 변화가 부모와 자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가족 내 부모와 자녀가 인지하고 행동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유대적 소통과 도구적 소통으로 유형화하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영상컨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양질의 가족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규명하였다.

가족 구성원 2 인 이상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시청과 혼자서 시청하는 단독시청의 정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았다. 또한 시청 중/후에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2 가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확인한 뒤,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상컨텐츠를 공동으로 시청하며 부모와 소통하는 것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상컨텐츠를 공동으로 시청하며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할수록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만족감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유대적 소통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시청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부모-자녀 간 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는 공동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대사회 가족에게 접착제와 같은 기제(mechanism)임을 증명한다. 공동시청이라는 행위가 해체되고 느슨해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족을 하나로 묶어내고 재생시키는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가족 커뮤니케이션에서 공동시청의 긍정적 역할을 재확인하며, 앞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미디어 이용방식을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결부시킴으로써 기존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영상컨텐츠 시청방식, 미디어 이용행태, 공동시청, 부모-자녀 커뮤니케이션 유형,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모-자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학번: 2011-23157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5

1. 가정 내 공동시청과 단독시청 5
2. TV 공동시청 결정요인 7
3. 영상 시청방식의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 9
4. 영상 시청방식 이용행태(공동시청 · 단독시청)에 관한 기존 문헌 10

제 2 절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14

제 3 절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16

제 4 절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18

1. 가족의 의미 18
2.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 21
   1)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21
   2)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 23
      a. 도구적 소통 25
      b. 유대적 소통 26

제5 절 영상시청과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 30

1.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시청 중/후 커뮤니케이션과 부모-자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30
2.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33
3.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35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37

제 4 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9

제 1 절 연구모형 39

제 2 절 연구대상 39

제 3 절 연구방법 40

1.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40
2.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41
3.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41
4.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42

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44
1)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44
2)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44
3)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44
4)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요인분석 45

제 5 장 연구결과 47

제 1 절 측정 자료의 검토 47
1. 응답자의 속성 47
2. 영상콘텐츠 시청가능 매체 보유 대수 49
3.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50
4. 상관분석 결과 51

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53
1. 회귀분석 결과 53
2.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연구문제 1 의 분석결과 54
3.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연구문제 2 의 분석결과 55
4.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문제 3 의 분석결과 57
5.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문제 4 의 분석결과 60
6.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도구적 · 유대적)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문제 5 의 분석결과 62
7.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 유대적)의 조절효과 ... 64
8.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 분석 67

제 6 장 결론 및 논의 71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76

참고문헌 78

부록(설문지) 90

표 목차

<표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2 가지 소통.....25
<표 2> 자녀의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측정 문항.....44
<표 3>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요인분석 결과 45
<표 4> 자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47
<표 5> 부모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48
<표 6> 영상콘텐츠 시청 가능 매체 보유대수 49
<표 7>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값.....50
<표 8> 변인 간 상관관계 51
<표 9>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54
<표 10>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56
<표 11> 자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58
<표 12> 자녀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58
<표 13>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59
<표 14>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느끼는 만족감 상관관계.....59
<표 15>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아버지와의 소통: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61
<표 16>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어머니와의 소통: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61

<표 17>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 유대적)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63
<표 18>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 유대적)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63
<표 19>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와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 유대적)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65
<표 20>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와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 유대적)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66
<표 21>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Ⅰ 68
<표 22>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Ⅱ 6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39
<그림 2> 상호작용 그래프Ⅰ 69
<그림 3> 상호작용 그래프Ⅱ 69

제 1 장 서 론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국민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구성원 2인 이상이 함께하는 가족공유 여가 활동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미디어 이용' 은 평일 34분(가족공유 여가 시간 52분 중)이며, 일요일이 1시간 19분(가족공유 여가 시간 2시간 8분 중)으로 가장 길다. 그 중 TV 시청이 공유 여가시간 중에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것은 국내 외 여러 연구와 일치한다 (이기영 · 김외숙 · 구혜령, 1996; Gatenby, 2001; Kingston& Knock, 1987). 기존에 집에서 영상시청을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TV를 시청하는 것이었는데,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TV 세트 이외의 방식을 통해 영상시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던 모습은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미디어로 개인이 원하는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미디어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mobility),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ubiquity),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personalization) 할 수 있게 되었다(성동규 · 김인경, 2011).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의 개인화'는 서서히 진행되어왔다. 기존 유선전화의 기능은 피쳐폰과 스마트폰 등으로 대체되고, 신문과 TV 의 기능은 컴퓨터 및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이 주도권을 지니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젊은 신혼부부의 집에 유선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고, 신문의 구독률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가족이 공동으로 이용했던 미디어들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개인이 소유권을 지니고 단독으로 이용하는 기기의

소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새로이 출시되는 기기들도 매번 좀 더 휴대하기 쉬운 사이즈와 무게, 기능 등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가족 내 공동시청과 비교적 새로운 시청행태인 단독시청을 비교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커뮤니케이션 중 자녀와 부모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로벌슨과 사이몬스(Robertson & Simon, 1989)는 청소년기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 해결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던컨(Duncan, 1999)은 가족 구성원의 단결력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공동시청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한편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제고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단독시청에 비해 공동시청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접촉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녀와 부모는 단독시청을 더 자주 하는 가족보다 높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 unication competence)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언어적 상호교류는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Lamborn et al ., 1991) 부모-자녀 사이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teinberg, 2001). 단독시청보다 공동시청을 많이 할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횟수도 증가하고 영상 콘텐츠를 함께 시청하며 나누게 되는 대화나 시청 후 콘텐츠의 내용을 주제로 하는 토론 및 논쟁, 일상대화는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공동시청을 통해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닌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 안에서의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에 따른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시청 중이나 후에 영상콘텐츠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량을 비교하여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2012)의 조사결과 국민의 53.4%가 TV 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10 대와 20 대는 각각 45.9%와 50.9%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라고 답했고, 50 대와 60 대 이상의 경우 각각 81%와 92.9%가 TV 를 선택해 세대 간의 미디어 선호 체계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안에서 청소년들은 배려나 이해와 같은 기본 덕목을 배우고 실천할 수도 있고 본인 위주의 고립적이고 이기적인 가치를 습득해 나갈 수도 있다. 자신의 의지대로 개인이 주도권을 지니고 삶을 조정하는 데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본인 중심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모를 남으로 생각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부모는 자녀를 성적으로만 평가하고 자녀는 부모를 돈벌어오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가족의 타인화가 심화되”(김세동, 2008)는 등 가족의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형화하여 구분한 여러 가지 모델(Barnes & Olson, 1982; Gordon, 1977; 이창숙, 1987; 김정희, 1988)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1) 자녀 자신이 필요한 것만 부모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도구적 소통, (2) 협동, 단합, 걱정, 감사, 배려, 희생정신의 추구가 담긴 유대적 소통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에 따라 (1) 부모-자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 두 가지 유형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두 가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첫째, 기존의 공동시청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시청행태인 단독시청에 따른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 내 올바른 시청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가족 간 교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는 가족 기능의 붕괴라는 현상을 고려한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의 2 가지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결속력이 낮아지고 있는 가족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시청이 이용될 수 있음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가족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바람직한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을 제안하는 작업을 통해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1. 가정 내 공동시청과 단독시청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영상콘텐츠 시청행태는 가족 구성원이 혼자 보는가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보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시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TV 를 공동시청하는 이용행태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이은미(1995)는 가족 TV 시청유형을 '가족함께, 부부끼리, 자녀끼리, 혼자'의 4 개 범주로 나누고 앞의 3 개를 공동시청으로 정의하였다. 오하영(2007)은 가족의 TV 공동시청을 2 인 이상의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함께 TV 를 시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범종, 김진호, 김인숙과 이민구(1999)는 가족의 TV 시청유형을 '단독시청, 2 인 시청, 3 인 이상 시청'으로 구분하고 시청 비율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오정호(2001)는 가구당 구성원 수와 한 부모 가정의 비율 등에 따라 가구당 구성원 수가 TV 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공동시청에 관련된 기존 연구 중 다수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청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가족의 TV 시청행태를 연구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를 공동시청하는 미디어 기기를 TV 로 한정해서 살펴보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이 결합된 미디어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고 개인이 사용하기 편한 형태의 디자인이나 기능, 사이즈 등을 강조하며 시장에 나오고 있다. 개인이 관리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요소들을 갖춘 새로운 미디어 기기들은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품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 내에서는 TV 외에도 여러 미디어 기기를 통해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인터넷과의 연결을 통해 TV 콘텐츠 외에도 무궁무진한 종류와 양의 영상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미디어 기기를 가족 구성원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시청하는 경우를 단독시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미디어 기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가족 구성원이 가정에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는 경로가 분산되며 가정 내 단독시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공간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였을 때에도 가족과 별개로 미디어를 단독이용하여 또 다른 '세계'에 접속하여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만 실제로 함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한 지붕 따로 가족'의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마다 이용 가능한 영상콘텐츠 시청 미디어가 다르고, 영상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매체의 수가 다양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 일괄적으로 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은 태블릿 PC 를 부모가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이용하다가도 교육적 측면에서 자녀에게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가족은 자녀가 혼자 노트북으로 유튜브(Youtube)에서 오락 또는 연예물 영상을 보다가 이를 부모와 공유하기 위해 함께 시청하는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한 시청행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을 구분 짓는 기준은 모호하다. 가족 내 전통적인 영상 시청기기인 TV 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은 모바일(mobile) 하기 때문에 기기의 배치 및 이동이 용이하여 단독시청과 공동시청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모바일 미디어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이들 양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동성과 휴대성이 강조된 미디어이다(이병혜, 2006). 결국,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한 만큼 공동시청과 단독시청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보다 매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가정에 있는 각 매체를 얼마나 함께 이용하는지

혹은 혼자 이용하는지 그 수준의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새롭게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2. TV 공동시청 결정요인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영상 시청방식인 단독시청과 달리 가족 내 TV 공동시청은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공동시청의 효과 및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단독시청이라는 시청행태가 가족 내 공동시청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기존의 공동시청이라는 시청행태가 어떠한 이유로 가족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가족의 TV 공동시청 결정요인을 가족 구성원 개별 시청동기, 선호 프로그램 유형, 매체 이용량 등의 변인들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가족마다 가치관과 특성이 다르고 가정 내 존재하는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모든 가족에 적용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가족의 공동시청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와의 TV 공동시청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에 대한 부모의 감시(monitoring) 양육태도와 관련지어 다루어졌다. 미디어 모니터링에는 크게 3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자녀가 부정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특정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유해성 여부가 불확실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자녀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청하는 비교적 수동적인 공동시청(coviewing)이다(Nathanson, 2001). 공동시청을 통한 중재법은 자녀와의 대화나 논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청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보다는 수동적인 중재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여러 연구자는 가족 내 이루어지는 공동시청이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시각을 지니고 부모의 중재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Atkin, Greenberg, & Baldwin, 1991; Bybee, Robinson, & Turow, 1982; Valkenburg, Krcmar, Peeters, & Marseille, 1999).

TV 공동시청은 가족구성원 밀도가 높은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긴장완화나 갈등회피의 대처수단(coping-mechanism)으로 이용된다는 로잔블랫과 컨닝험(Rosenblatt & Cunningham, 1976)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시청은 가족과의 대화를 회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매우 성공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는 공동시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공동시청을 결정짓는 요소는 가족 구성원의 숫자나 가족 간 갈등의 빈번함 등으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변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공동시청을 하게 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공동시청을 가족 공유활동의 일부로 보고 접근하는 연구에서는 가족 공유 여가활동에 미디어 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콘텐츠 시청과 기기의 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김외숙, 1991). 종교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등의 가족 여가 활동에서 미디어 이용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 이용보다 영상시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공유활동에서의 공동시청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가족의 여가시간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쉽고 대중적으로 선택되는 여가활동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처럼 시청방식은 개인이나 가족의 습관적 시청행태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를 피하고자(Reid & Frazer, 1980)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청방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를 이해하고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영상 시청방식의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

1950 년대 TV 이용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이래 여러 학자들은 TV 가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다수의 연구가 가족 내 TV 공동시청의 긍정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있으나(Lemish & Rice, 1986; Lesser, 1974; Messaris & Sarett, 1981; Riely & Riley, 1951; Salomon, 1977; Watkins, Calvert, Hyston-Stein, & Wright, 1963), 공동시청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Maccoby, 1951; Robinson, 1972; Steiner, 1963; Walters & Stone, 1971).

라일리와 라일리(Riley & Riley, 1951)의 가족 내 TV 공동시청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공동시청이라는 매체 이용행태는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며, 공통된 경험을 생산시키는 환경을 마련하여 가족 결속력 향상에 이바지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이야깃거리를 찾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럴(Lull, 1980) 역시 TV 공동시청은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특히 오락/정보 프로그램 시청 시 함께 나누는 공유감정은 가족의 유대감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은미(1995)도 공동시청은 가족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며 실제로 공동시청을 많이 할수록 평소 가족 간 대화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맥코비(Maccoby, 1951)는 방송 콘텐츠를 지속해서 많이 시청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간 교류의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공동시청은 가족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공동시청이 가족에게 부정적인 이유는 시청행위가 직접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Robinson, 1972; Walters & Stone, 1971). 컴스탁(Comstock, 1978) 역시 가정 내 TV 의 존재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시간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동시청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은 아직도 논의의 대상이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연구가 공동시청이 가족에게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측면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시청의 긍정적인 면모들에 중점을 두고 단독시청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4. 영상 시청방식 이용행태 (공동시청 · 단독시청)에 관한 기존 문헌

바워(Bower, 1973)는 가정 내 TV 시청은 단독시청보다 공동시청이 대부분이며, 동(同)세대간 공동시청(부부 공동시청 혹은 자녀간 공동시청)이 이(異)세대간 공동시청(어른과 자녀의 공동시청)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후 맥리오드, 피츠패트릭, 글린과 팔리스(McLeod, Fitzpatrick, Glynn, & Fallis, 1982) 역시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몰리(Morley, 1986)는 민속지학적 연구를 통해 18 가족을 대상으로 TV 에 대한 근본적 소비단위가 개별 시청자가 아닌 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이 TV 를 공동시청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은미(1995)의 가족 공동시청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개인의 단독시청보다 공동시청이 더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응답자의 약 90%가 집에서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시청한다고 응답하였고 12% 정도만이 혼자서 시청한다고 답하여 TV 시청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반면 신해진와 김진호(1996)는 서울지역 시청자 패널을 이용하여 3 개 범주의 시청상황(단독시청, 2 인 시청, 3 인 이상시청)을 분석하였는데 단독시청이 57%나 되는 결과를 나타내 기존 연구들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 오하영(2007)이 서울지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TV 단독시청, 2 인 이상의 공동시청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가족 공동시청 시간은 47.78%이고 개인 단독시청은 52.22%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기능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처리 등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까지 가능하고,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와 WiFi(Wireless Fidelity)를 통한 인터넷 접속,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일정 및 개인정보 관리 기능,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방송시청, MP3 음악감상, 인터넷 접속을 통한 정보검색, 게임이나 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방송통신위원회(2012)의 유무선 가입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 년 3 월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2,572 만여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47.7%에 달하고 매달 스마트폰 가입자는 100 만 명 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태블릿 PC 의 경우 57 만여 명의 가입자를 지니고 있으며 매달 7~8 천 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PC 는 '터치스크린을 주 입력 장치로 장착한 휴대용 PC' 로 콘텐츠 소비에 최적화된 스마트 기기로서 보급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오석근, 2012). 개인 소유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의 2012 년 7 월 컴퓨터 보유율은 82.3%로 전년대비 0.4%p 씩 소폭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가구 컴퓨터 보유율이 전체 가구 중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등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할 수는 없으나 가구 내 컴퓨터 보유율이 지난 5 년 동안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목적의 기기 이외에 추가로 개인 소유 기기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단독시청이 가능한 다양한 기기들은 더욱더 널리 퍼지고 대중화되고 있으며 단독시청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단독시청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기기를 선택해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동시청과 차이가 있다. 단독시청의 경우 공동시청보다 자율적으로 기기를 이용하며 본인의 편의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개인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콘텐츠의 단독시청은 대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82.1%로 나타났다. 이는 82.3%의 컴퓨터 보유율에 상응하는 통계로 많은 가구가 컴퓨터도 보유하고 인터넷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07)은 TV, 신문, 라디오, 영화 등의 오프라인 콘텐츠를 위해 전체 이용자들의 약 70%가 인터넷에 접속하며 이 중 21.5%는 TV 시청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컴퓨터를 통한 TV 시청은 주로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와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방송 전문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시청하기도 한다.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여 시청하는 방식도 있다. 단독 시청을 가능케 하는 기기들은 TV 콘텐츠 시청 이외에도 다른 영상 콘텐츠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최근 유튜브(Youtube)나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에서도 비교적 짧은 동영상이 게시되고 그에 대한 반응이 함께 화제가 된다. 동영상 일부는 TV 콘텐츠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개인이 제작하고 만든 다양한 종류의 영상콘텐츠까지 인터넷 접속을 통해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기능을 뛰어넘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로 휴대전화에 대한 매체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Kate, 1999). '개인 중심성, 즉시성, 및 직접성' 이라는 휴대전화의 매체적 특징은 (나은영, 2001) '가족 중심성, 시공간 제약성, 채널선택의 제약성' 등 TV 의 제한적인 기능의 속성을 보완한다. TV 공동시청의 한계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채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채널선택권은 대개 가정 내의 위계질서에 많은 영향을 받아 자녀들보다는 부모의 선택권이 강하게 나타나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선택권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방순화, 2005). 이와 반대로 TV 채널선택권에서 자유로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는 자신이 선호하는 채널을 자유자재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시청과 차이가 있다. 기존에 TV 가 거실이나 안방이라는 가정의 핵심적인 공간에 위치했다면 이제는 wi-fi 나 3G 서비스만 주어지면 어느 장소에서든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TV 시청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위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타블렛 PC 에 콘텐츠 파일을 다운받아 기기에 옮겨서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K 플레이어, pooq, olleh TV now, TVing 등의 앱을 다운받아 실행시키면 실시간으로 TV 를 시청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TV 시청패턴이 모바일 휴대전화가 지녔던 고유 속성들과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K 플레이어는 KBS 의 통합 미디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고 MBC 와 SBS 는 합작으로 모바일 방송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POOQ 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내놓았다. EBS 도 교육방송콘텐츠를 EBS 온에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같은 단독시청을 위한 기기를 이용한 TV 와 영화 소비에 더 익숙하고, 가족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시청할 때 10 대 청소년들은 자신 방에서 똑같은 드라마를 DMB 폰으로 시청하는 현상도 나타난다(이창훈 · 박성복, 2012). 전통적으로 가족이 가정에 모두 모여 함께 시청하는 공동시청과 달리 단독시청은 개인적인 채널 선택권을 지니고 필요성이나 기호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충환, 2012). 영상콘텐츠를 시청을 할 수 있는 매체의 다양화는 이미 가족 구성원의 영상콘텐츠 시청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TV 를 공동시청하는 경우와 개인의 기기를 이용하여 단독시청하는 경우로 분리되는 것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대로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며 통근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는 나름대로 부모의 간섭없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시청하려 하는 것이고 부모는 혼자 보내는 나름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단독으로 시청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개인이 원하는 바를 당당히 요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므로 가족의 가치와 맞물려 TV 를 시청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 2 절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동시청은 가족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공동시청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영상콘텐츠를 함께 시청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같은 공간에서 영상콘텐츠를 가족이 함께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나 이후에 나누는 대화의 주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증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communication competence)은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부모의 롤모델(role model) 등과 같은 상호작용 과정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향상되기 때문에(Duran & Kelly, 1994) 공동시청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기회로 작용한다.

여러 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정의하기 위해 오랫동안 동안 상당한 노력을 해왔지만(Canary, Cody, & Manusov, 2003; Parks,

1994; Spitzberg & Cupach, 1984; Wiemann & Backlund, 1980) 하나로 좁혀 단언하거나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개념은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Spitzberg & Cupach, 1984)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정의가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1) 지식의 차원으로 보는 '인지적' 관점과 실행의 차원으로 보는 '행동적' 관점 (2) 선천적이며 기질적인 '성향'으로 보는 관점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태'로 보는 관점 (3) 언어기술로 보는 '언어적' 관점과 상호작용 측면의 '대인적' 관점, 타인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적' 관점으로 나누어 진다(손지혜, 2012; 장해순, 2003; 최민아 · 신우열 · 박민아 · 김주환, 2009). 본 연구는 영상 시청을 함께 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 이루어지는 교류를 통해 자녀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행동적 관점을, 영상시청 방식이라는 상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상태적 관점을, 자녀가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대인적 관점을 취하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듯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학습을 통해 길러지기보다 언어능력과 함께 언어 외적인 요소인 사회 및 문화적 의미가 통합된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기르면서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활용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이명일, 1989).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을 통해 말하기나 듣기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Bassett & Boone, 1983; Ford & Wolvin, 1993)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즉각적으로 향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Rubin & Graham, 1988; Rubin, Graham, & Mignerey, 1990). 따라서 공동시청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널을 선택하면서, 볼륨을 조절하면서, 프로그램 혹은 콘텐츠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한 논의나 대화를 시청 도중에 혹은 시청 후 시간이

흐른 뒤 이야기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습하는 기회이다. 가족 구성원 간 사소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타협, 협동, 교류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적용하여 타인과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아이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으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통제력도 높아지기 때문에(조윤경 · 김영석, 2009)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색하는 가정환경이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시청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1 차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실천했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학교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하며 원만한 삶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단독시청이라는 새로운 시청행태의 등장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기존의 공동시청방식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동시청의 정도 및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의 커뮤니케이션을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제 3 절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테이어(Thayer, 1986)는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정의를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개인적 만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를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하면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자녀가 혹은 부모가 느끼는 만족'으로 볼 수 있다. 부모나 자녀가 느끼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정도는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자녀의 높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대화, 가족 간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이금 · 박옥임 · 이경주, 1994)을 볼 때 대체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일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한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벌슨과 사이몬스(Robertson & Simons, 1989)는 자녀와 부모가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감정교류와 정보전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호작용으로 보고,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가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인성이나 행동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부모-자녀 간 소통의 기본은 심정교류가 강하게 작용하는 독특한 소통 방식을 형성하고 있어, 기존의 서양 연구들이 소통의 축을 문제 해결방식에 두었다면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간 소통 방식에는 감정과 정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이정숙 · 김국태 · 박창균, 2010).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만족도는 메시지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과 정서적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자녀가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총체적으로 얼마만큼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만족하는 자녀는 상호 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부모에게 왜곡됨 없이 전달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흘러가지 않으면 때때로 반항하기도 하고 불손하게 행동하는 등 삐뚤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부모의 적절한 관심이 주어질 때, 자녀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부모의

입장에도 귀 기울이게 된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그들과 함께 지내고,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또한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공감하는가 등의 커뮤니케이션 변수에 의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부모를 받아들이고 대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관계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의 변수 조합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하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자녀의 장기적인 행복과 적응, 성장, 교육 성취, 사회적 성공 등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Thornton, Orbuch, & Axinn, 1995).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만족하는 자녀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나 커뮤니티 등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도 낮고 오히려 자기발전에 긍정적으로 임하게 된다. 특히 만족도가 높을 때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더 편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끈끈한 애정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부모와 높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화목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제 4 절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1.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개인 인생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이라고 불리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후에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 혈연 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의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 (유영주, 1993)으로 정의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은 개인이 사회에 나가기에 앞서 구성원이 지녀야 할 책임감을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예절을 깨우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하는 개인 성장 과정의 일환이다. 이 과정을 거쳐 가정 밖의 사회라는 공간에서 가정에서 배운 사회규범을 적용해보고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만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들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의 집합체인 건전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잠재적인 힘은 국가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의 건전성과 결속력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창덕, 2006).

가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하위체계인 부모와 자녀 차원에서도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자녀에게 부모는 다양한 가르침 주는 존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자녀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를 고치도록 도와주고 타이르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가 애정으로 감싸주기도 하면서 자녀가 기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여 자신의 고민이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게 하여 자녀가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걱정 없이 원활하게 교류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만일 자녀가 부모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기 꺼리며 진솔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가족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에게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가족 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아동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맴돌거나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규범 일탈 및 자기고립, 문제행동 등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송성자(1987)의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에게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하는 존재이며 가족으로서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상대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는 자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삶의 이유를 찾아가고 기쁨을 얻는다. 자녀의 성장과 행동발달에 따라 부모는 부모가 지녀야 할 책임감을 키워나가며 만족스러운 결과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이나 결과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부모의 사랑을 갈구한다. 한국문화에서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은 “부자유친 성정(父子有親性情)”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자애와 효를 바탕으로 한 감정 및 의식의 동일체적 친애관계로 간주하여 일심동체적 의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최상진 · 김혜숙 · 유승엽, 1994; 최인재, 2006).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나 슬픔 등 정서경험은 서양 문화에서 부모와 자녀가 느끼게 되는 대리만족이나 대리 슬픔과 달리 자신의 느낌처럼 동일하게 경험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2000). 따라서 가족이 부모와 자녀 서로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며 가족 내 부모-자녀는 단결할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로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요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거리감 없고 단단히 뭉친 가족의 유대를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2.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

1)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이루기 쉽지 않다.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내용적 측면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으로 보기 어렵다. 소통의 의미를 단순한 의사전달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으로 생각해야 한다(백현, 2010).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득보다는 공감을 얻어 쌍방향적인 교감이 있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통 단절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아프지 않지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몸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것처럼 소통의 통로가 막히면 사회와 가정이 병에 들게 된다. 원활한 소통은 건강한 사회와 가정의 밑거름이 되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법을 제대로 익힌 아이들이 자라 사회에 나와서 사회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올바르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실천하게 될 것이다.

가족에게 소통이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교환 및 전달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이다(Gottman, Markman, Gonso & Notarius, 1976). 고경애와 정민정(2007)은 가정 내 소통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서로 공유하는 행동'으로 상호 소통방식의 기본적인 형태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들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족 내 원활한 소통이란 앞서 언급된 쌍방향적인

소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브레이(Bray, 1995) 역시 가족 구성요소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소통을 꼽았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설명하는 능력과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건강한 소통은 적절한 관심과 공유된 공통 주제 및 의미,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의 교환을 의미한다. 소통은 가족을 가족으로 기능하게 하는 필수요소인 것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중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간의 공통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반향적 과정 (Galvin & Brommel, 1986; 민하영, 1992)'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에게 부모와의 소통은 개인이 태어나서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잦은 접촉과 함께 비례적으로 소통의 양도 증가한다. 인간의 유대관계는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발전되는 데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쌍방이 시간을 두고 양질의 소통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 소통부족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여온 가출 청소년들은 집에서 나와 거리를 전전하며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들이 가출하고 사회문제를 만들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신과 같은 처지인 가출한 또래들과 어둠의 길로 빠져드는 길을 택하는 가출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는 부모와의 소통 결핍으로 인해 관계가 아예 무너져 버린 것이며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부족은 서로의 마음에 벽을 쌓아올리는 계기가 되고 애정집단으로서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부모는 자녀를 성적으로만 평가하고 자녀는 부모를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가족의 타인화가

심화되" 는 등 가족의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였다(김세동, 2008).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담은 내용의 실존적 소통이나 유대적 소통보다 각자의 욕구추구에 필요한 말만 하는 도구적 소통만 간단히 나누게 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메마른 땅과 같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은 이미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2006 년 한국교육개발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고학년의 30.9%는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어머니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19.8%나 됐다. 대화단절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40.6%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부모 간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결핍되어있는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부족은 정서적 안식처라는 가족의 기능을 붕괴시키고 가족의 타인화 및 도구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부모-자녀 간 관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는데 단순하게 정보전달 및 의사표명의 내용에 속하는 커뮤니케이션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내용의 대화까지 부모-자녀 관계의 성숙도와 상황에 따라 오가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부모-자녀 간 친밀감의 깊이에 따라 다르며 도구적 소통, 유대적 소통으로 나뉜다. 필요와 목적이 분명한 내용의 소통을 도구적 소통, 일상적 생활의 공유나 유대감 표출을 위한 소통으로 높은 수준의 정서적 유대감을 동반하여 진솔된 속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유대적 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드러나는 2 가지 유형이다.

기존 문헌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다루고 정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반즈와 올슨(Barnes & Olson, 1982)은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여부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open communication)과 폐쇄형 커뮤니케이션 (problem communication)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커뮤니케이션은 모순 없는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이고, 폐쇄형 커뮤니케이션은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이중속박 및 빈약한 문제 해결 기술을 지닌 유형을 말한다(국길순, 2003).

골든(Gordon, 1977)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을 '나 전달법(I-message)' 유형과 '너 전달법(You-message)'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나 전달법(I-message)'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모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알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너 전달법(You-message)'은 명령이나 경고, 설교 등의 형태로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요하는 듯한 평가와 비난 조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이창숙(1987)이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친숙형, 성실형, 분석형, 타인지향형으로 분류하고,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을 권위형과 희생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정희(1988)는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구분한 바 있는데 수평, 협력적, 쌍방 통행식과 수직, 강압, 지시적 일방통행식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간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차원을 연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있었으나 현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측면을 반영하는 유형은 아직 없다.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약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타인화되어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구분하는 시도는 타인화의 심각한 정도를 가늠하게 하므로 매우 절실하게 요구된다. 효의식의 감소나 공경의식의 감소 등도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존재를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대두하여 왔지만,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를 구별하려는 시도가 미흡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부각해야 하는 측면을 담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의 2 가지 소통 유형

	대표단어	하위 속성
도구적 소통	지원	필요에 의한 관계, 무관심, 의무적인 책임
유대적 소통	협동, 이해	연대체제 강화, 정서적 유대, 단합과 협력, 존재의 불안/고통/희망/희생 인정, 감사, 보상, 자발적인 의지

a. 도구적 소통

도구적 소통은 개인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의 소통을 의미한다. 본인이 일시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내용의 소통이 도구적 소통에 해당하는데, 주로 목적이 분명하고 즉흥적인 대화나 행동이 이에 속하게 한다. 김영태(2002)는 도구적 커뮤니케이션을 필요한 물건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부모나 자녀가 서로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도구나 수단의 성격을 띤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은

도구적 소통으로 분류된다. 경제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녀가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 도구적 소통이 발생한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피력할 때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앞뒤 정황을 말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도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안일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의식주 및 학업, 여가생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도구적 소통에 해당한다. 이는 감정이나 정서적 측면의 요소가 거의 없는 형태의 대화와 행동이며 최하위 수준의 정서적 교감을 담고 있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띠는 도구적 소통은 특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므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나 핵심이 강조되며 개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

강수택(2012)은 타자와의 관계를 열린 관계와 소통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닫힌 관계와 도구적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하여 논의하며 도구적 관계를 닫힌 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서 도구적 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친밀감이 낮은 형태이며 필요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개 도구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소통이 서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구적 소통이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교감을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b. 유대적 소통

유대적 소통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단합과 협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간의 강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 협력, 희생 등에 대한 부분을 자녀가 인정하고 공감하며 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도 이에 해당한다. 각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싸는 심층적인 염원이 담긴 내용으로 삶 내면의 고민, 걱정거리, 불안감을 공유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는다. 이에 대한 정서적 위로를 한다거나 부모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을 느끼고, 삶의 짐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양과 상호 희생을 위한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세 등을 포함한다.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감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근하게 대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대화나 행동을 통해 보인다. 유대적 소통은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라는 관계를 체계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부모와 자녀가 단결하여 화합할 수 있게 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서로의 걱정거리를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며 개별 구성원들의 심층적인 염원을 담고 있는 유대적 소통은 도구적 소통을 넘어서는 수준의 소통이다.

덕과 펀드(Duck & Pond, 1989; Goldsmith & Baxter, 1996; 정미선, 2007)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적 기능을 제시하면서 인간관계는 그날그날 상대와 함께하는 일련의 대화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대화의 기능이 대화참여자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닌 '일상적 대화'를 통해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연구는 '잡담(small talk)'과 같은 일상적 대화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잡담은 개인이 최초의 상호작용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도구로써 관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Goldsmith & Baxter, 1996, p. 83)".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잡담은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공유하게 함으로써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Rakow, 1992). 잡담 이외에도 안부를 묻거나 하루의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관계의 연결성과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Sigman, 1991).

펄리스와 알렉산더(Faules & Alexander, 1978)는 '자기노출'을 자신의 자아를 다른 이와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너와 나'를 '우리'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나은영(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자기노출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이해의 과정을 통해 친밀감이 싹트기 시작하며, 친밀감의 정도가 커질수록 자기노출의 양과 질은 더욱더 커져서 순환하는 과정을 보인다. 유대적 소통은 친밀감을 형상시킴으로써 부모나 자녀가 자신의 입장을 서로에게 마음 편하게 노출하게 한다. '자기노출'을 통한 대화는 친밀감의 향상과 미래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부모-자녀 간 대화의 내용에 자기노출이라는 솔직한 감정을 포함시킴으로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돈독히하고 상호간 정신적인 버팀목을 만들어준다.

알브레크와 아델만 (Albrecht & Adelman, 1987)은 '사회적 지지'를 어떤 상황이나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상호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는 불확실성 감소, 자신감 강화, 관계에 대한 재평가 등을 유발함으로써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Albrecht & Adelman, 1987; Goldsmith, McDermott & Alexander, 2000; 정미선, 2007). 이 개념은 "사랑, 공감, 걱정의 표현"이라는 정서적 측면에서 (Cutrona, 1996) 주로 연구되었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즐거움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어 더욱더 발전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장 많이 주고받으며 가까운 정도가 멀어질수록 주고받는 정도는 약해지기 때문에 관계 유지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오하영, 2007). 부모-자녀의 유대적 소통에서 '사회적 지지'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였을 때 그 감정에 대한 진심 어린 소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걱정이 있다면 함께 걱정해주고 공감하는 내용에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도 쳐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다. 단순한 의미전달이나 친밀감

표현의 의사소통 이상의 참된 마음의 교류를 유대적 소통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도 가족 구성원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활동이 필요하다. 축적된 공통의 경험 없이 부모와 자녀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에 옮기고 추억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많은 의견 교류를 통해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단위의 활동에는 외식, 가사노동의 협업, 종교 활동 참여, 봉사활동 참여, 여행, 가족 행사, 여가활동,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소풍, 목욕탕을 함께 가는 것 등이 포함되며 부모와 자녀가 협동하여 활동을 진행한다든지 활동의 부분적 측면을 분담하여 책임을 지고 이끈다든지 가족 단위의 활동을 완성하는 내용의 소통을 유대적 소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MBC 의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가 1 박 2 일 여행을 통해 왠지 모르게 서먹했던 관계에서 더욱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행하며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놀이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은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며, 함께 이루어나간다는 협업을 경험하게 하여 서로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한다. 정서적 교감이나 유대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적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고 서로를 편한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필요한 바만을 언급하는 도구적 소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의 일상을 이야기한다는 점은 상대를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상대가 편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에 있던 자녀가 부모를 맞이하는 태도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는지 등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대하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식사거리나 티비쇼에서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의 내용은 당시에는 특별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나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고 배려심을 갖고 경청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관심과 신뢰, 믿음, 정서적 유대를 쌓을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제 5 절 영상시청과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

1.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시청 중/후 커뮤니케이션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그동안 밝혀진 자녀의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개방성, 확신성, 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행위나(Strigth & Bales, 2003) 부모의 대화수용성과 배려성(권영길 · 이영선, 2009),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시간의 길이,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고 이해하며 존중해주는지, 얼마나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는지 등의 변수가 있다(Buerkel-Rothfuss, Fink & Buerkel, 1995; 이정우 · 김규원, 1989).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공동시청의 긍정적인 결과물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공동시청은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증대시키며 대화를 나눌 주제를 제공하는 등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공감대 형성

및 상호작용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부모와의 높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보이는 자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제한적이나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중 공동시청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족의 유대감 형성은 공동시청에 긍정적 영향으로 밝혀졌는데,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있다. 유대감은 구성원 간 비슷한 가치관, 상호의존성, 응집성 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가족 결속력으로(김유정, 2000) 유대감 형성은 가족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루어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가족생활에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Holman & Epperson, 1984; Orthner & Mancini, 1980). 이를 통해 공동시청으로 인해 더 큰 유대감을 지닌 가족에게서 더 높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승미(1998) 역시 부모와 자녀가 공유 여가시간을 보내며 경험을 쌓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기능과 유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부모-자녀 간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이며,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가장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가족 내 공동시청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동기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자리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나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구성원 간 암묵적인 동의가 존재한다(오하영, 2007). 이렇듯 공동시청이라는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은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접근하려는 가족 구성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유대강화와 더불어 가족 간 상호작용 증대는 공동시청의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녀가 느끼는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가족 간 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대면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로 정의되는데(Barker & Guat, 2001) 가족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된다(Kelly, 1983).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의 가장 큰 대화 장애요소는 대화시간의 부족으로 시간의 부족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할 기회를 차단하여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불만족을 강화시키게 된다(옥선화, 1985). 한편 공동시청은 부모와 자녀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Maccoby, 1951) 가족 간 대화에 소재를 제공하며 특정 이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의사소통 행위는 촉진하는 등(Lyle et al., 1968)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낳게 된다 하였다. 또한 단일한 주제가 아닌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부모와 소통하는 자녀가 더 높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도(Schrodt & Afifi, 2007)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공동시청이 가족의 상호작용 증대를 낳고, 그 결과로서 긍정적인 만족도가 증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가족 내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공동시청뿐만 아니라 단독시청이라는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행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화된 경로를 인지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자녀가 영상콘텐츠를 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시청하는 정도와 시청 중/후 콘텐츠에 관련된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변수로 보고,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의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이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2.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청소년기 자녀들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들이 같은 방식으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 자녀들의 성, DVD 및 VCR 소유 여부, 소득수준, 교육정도, 부모들의 미디어 이용 통제, 가정의 분위기나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 등 각기 다른 변수들에 따라 시청방식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어떤 요인들이 그 차이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왔다(Bronfenbrenner, 1979; Lull, 1990). 이와 관련하여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다수의 연구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을 결정하는 독립변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영상콘텐츠 시청은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기 때문에(김은미 · 정하음, 2006)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채피와 맥리오드, 워크맨 (Chaffee, McLeod, & Wackman, 1973)은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불일치를 인정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견교환 및 토론을 강조하는 개념 지향(concept-oriented)과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논쟁을 피하며 화합을 추구하는 사회 지향(socio-oriented)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 유형과 자녀의 TV 시청행태를 연구한 맥리오드, 앗킨, 채피(Mcleod, Atkin, & Chafee, 1972)는 개념 지향적인 가족일수록 자녀의 TV 시청시간이 짧고 부모의 개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사리스와 컬(Messaris & Kerr, 1983)도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자녀의 영상콘텐츠 시청에 대한 어머니의 조언 형태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념지향적 가족의 어머니는 자녀가 영상콘텐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본인의 의견이나 시각을 강제적으로 주입하기보다 자녀의 사고 범위나 표현력 확장을 이루기 위한 간접적인 조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간접적인 영향이자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하고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조윤경 · 김영석, 2009). 피츠패트릭과 리치(Fitzpatrick & Ritchie, 1994)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순응지향적(conformity orientation)과 대화지향적(conversation orientation)으로 나누어 보았다. 순응지향적인 가족은 부모가 가족 구성원 간의 일치된 태도, 가치, 신념을 강조하며 부모의 권위와 통제를 전제로 다른 구성원과의 화합을 중요시하며 폐쇄적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킨다. 대화지향적인 가족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의사표현과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시간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주 교류하며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킨다.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Cho & Cheon, 2005; Krcmar, 1996) 청소년기 자녀의 TV 시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조윤경& 김영석(2009)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유형과 영상콘텐츠 시청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하지만 럴(Lull, 1980)은 어린 자녀에게 부모와의 공동시청은 질문할만한 소재와 사항을 나누는 기회를 준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시청이 가족 구성원의 이(異)세대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화지향적이며 개방적인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자녀가 있는 58%의 가정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 시청을 하는데(Roberts, Foehr, Rideout, & Brodie, 1999)이 시간은 대개 가족 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고 상호작용 및 교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기회인 공동시청 시간 동안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부모-자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현대사회에서 만족스러운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부모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방적이고 일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신일진 · 김태현, 1991)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윤미애, 2003) 가족 응집력과 적응성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박은주, 1994).

부모-자녀 간 관계에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청소년기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해 가고 사회에서 원만한 적응력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여진, 2006).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높은 만족도에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 밖의 환경에서까지 원만하고 성숙한 삶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 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청소년이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한 이정우와 김규원(1989)은 가정 분위기, 학력, 대화시간 등을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으로 지적했다.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 간의 커뮤니케이션 만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가정 분위기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 학력이, 여학생의 경우 대화시간이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하기도 한다(백미숙, 2000).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바람직한 상호교류과정은 일방적이기보다 쌍방향적인 것으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때 더 큰 만족감을 발생시킨다(김희선 · 선우현정,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은 자녀가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성취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녀가 도구적 소통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길고 잦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상호작용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반면 대화시간이 적은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의사표현에 서툴고 주저하며 주제선택에 고심하는 등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인다(민하영, 1992) 반면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부모와 자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부모-자녀 간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은 격려와 신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민, 2009).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유대적 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높은 수준의 신뢰와 믿음을 요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대적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가정 내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자녀의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간의 영향을 탐색하면서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연구문제 1>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떠한 관계을 맺고 있는가?

<연구가설 1-1> 공동시청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떠한 관계을 맺고 있는가?

<연구가설 2-1> 시청 중 부모-자녀 간 소통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2> 시청 후 부모-자녀 간 소통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3>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어떠한 관계을 맺고 있는가?

<연구가설 3-1> 공동시청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공동시청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4>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과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어떠한 관계을 맺고 있는가?

<연구가설 4-1> 시청 중 부모-자녀 간 소통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2> 시청 후 부모-자녀 간 소통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5>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대 유대적)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5-1> 도구적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5-2> 유대적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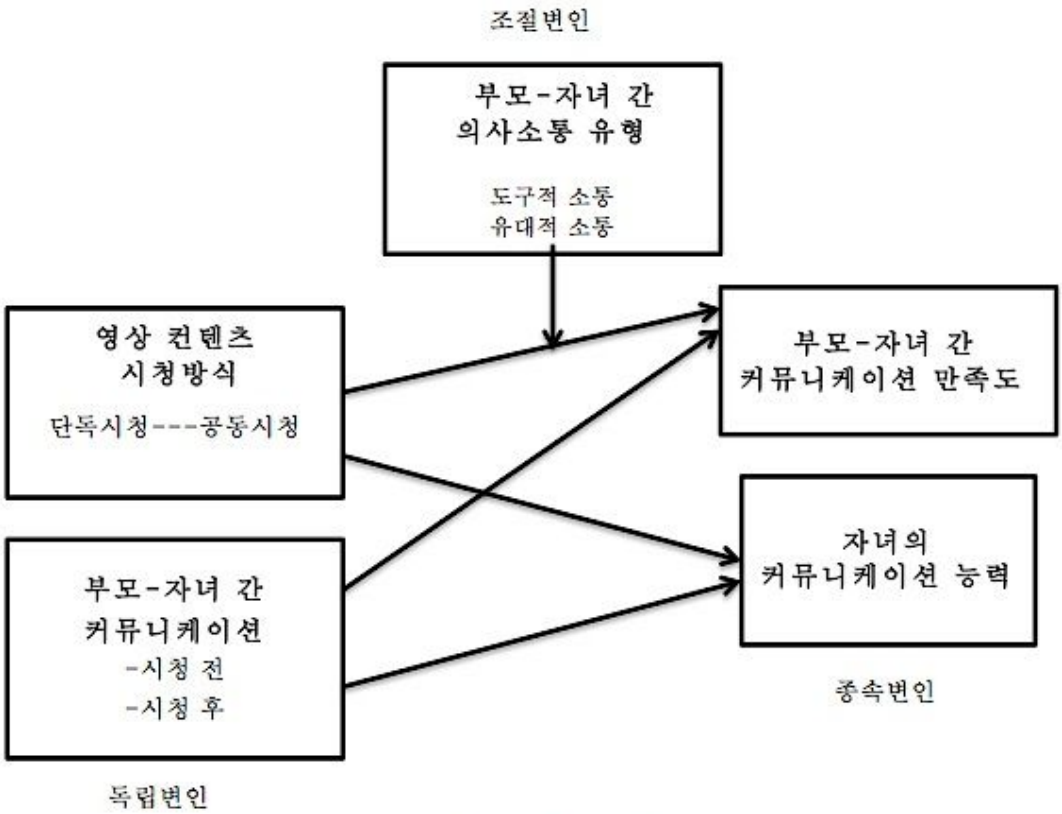
<연구가설 5-3>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보이는 정적 상관 관계의 강도는 유대적 소통이 도구적 소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6>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6>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시청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증가하는 정적 상관 관계는 유대적 소통, 도구적 소통의 순서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제 4 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남녀 중학생과 부모로 선정했다. 학업 스트레스가 비교적으로 큰 고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청소년의 경우, 여가시간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았다. 한 가정 내 부모와 자녀를 연구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인식을 측정하여 상호비교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서울 강남구의 중학교와 성북구의 중학교, 성당 중등부 자모회에 중학생 자녀와 부모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자녀용 설문지 220 부와 부모용 설문지 220 부를 각 한 부씩 배포하였다. 즉, 가정 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한 부와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아버지, 어머니)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한 부가 1 세트로 한 가정에 총 2 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그 결과 자녀용 설문지는 총 182 부, 부모용 설문지는 총 163 부 회수되었다. 부모용 설문지와 자녀용 설문지가 세트로 회수된 경우는 322 부(161 세트)였으며 자녀용 설문지만 회수된 경우는 21 부, 부모용 설문지만 회수된 경우는 2 부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 으로 분석되었다.

제 3 절 연구방법

1.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청소년기 자녀가 가정 내에서 단독시청과 공동시청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일주일에 시청하는 영상콘텐츠 시간을 답하게 하였다.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도구가 제한적이니만큼 미디어 기기별 단독시청-공동시청의 정도를 7 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시청방식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추가로 미디어 기기별 혼자 보는 경우와 함께 보는 경우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로 질문하여 그 정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2.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부모와 자녀 간 이루어지는 소통을 크게 도구적, 유대적 소통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화내용별 가족 간 대화 정도를 측정한 정미선(2003)의 '대화 내용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화 내용 척도'는 헤이즈(Hays, 1984)의 SOC(spouse observation checklist) 척도 190 개의 문항을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 수정한 것이다.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각 항목을 아버지에 대한 문항과 어머니에 대한 문항으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13 개의 항목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총 26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으로는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이유나 설명없이 돈을 달라고 말한다.' '아버지/어머니가 무엇을 하자고 제안했을때 나는 흔쾌히 따르겠다고 말한다.' '나는 나의 중요한 결정사안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눈다.' '나는 내가 가진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어머니와 대화한다.' '나는 용돈을 받고 나면 아버지/어머니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매우 비밀스런 얘기를 털어놓는다.'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로 하여금 '거의 안함'에서 '매우 자주'까지 5 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실제 측정에서 각 소통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응답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문항을 유형과 상관없이 제시하였다.

3.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허경호(2003)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포괄적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척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의 15 개 하부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부차원은 하나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는 비슷한 의미의 문항을 제외하여 총 13 개의 진술문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5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으로는 '나는 친구들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상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나는 내 자신을 말이나 표정, 몸짓 등으로 잘 표현한다.'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등 이다. 이 척도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허경호(2003)는 이 척도의 적절한 신뢰도와 동반타당도 및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4.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인간이 각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들을 성취하였을 때 느끼는 만족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호창 · 전정미 · 나진균, 2007). 가족 내의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내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자녀가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윌리엄스(Williams, 1997)의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인식척도를 수정한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CSI) 중 12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12 가지 항목을 아버지에 대한 문항과 어머니에 대한 문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총 24 문항에 대하여 5 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자세한 문항은 <표 2>와 같다. 이 척도는 윌리엄스와 자일스(Williams & Giles, 1996)가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비교문화연구에서도 이미 그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다(Williams, et al., 1997). 이것은 다른 집이나 가족 내의 노인들과 갖는 대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표 2> 자녀의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측정 문항

내 용	척 도
아버지/어머니는 완고해서 내 말을 잘 듣지 않으신다.	5 점 리커트 척도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칭찬해주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유익한 충고를 많이 해주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신다.	
아버지/어머니는 권위를 잘 내세우지 않으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공손히 행동해야겠다고 느낀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았다고 느낀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대체로 말이 통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변명을 많이 해야 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만족감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문항을 부모용 설문지에 추가하였다. 0~100 점 사이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100 점에 가까울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0 점에 가까울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불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1)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허경호(2003)의 포괄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척도에 신뢰도 검증(Cronbach’s Alpha Test)을 실시하였다. 문항 7 번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와 9 번 ‘내가 대화할 때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는 다른 문항과 달리 내가 느끼는 인식의 차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느끼는 차원의 문항으로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설명력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해 두 문항을 제외한 11 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가 .852 로 나타나 이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설명해주고 있다.

2)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측정한 항목 총 24 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Cronbach’s Alpha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계수가 .888 로 나타나 이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설명해주고 있다.

3)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위해 구성한 총 26 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 (Cronbach’s Alpha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계수가 .895 로 나타나 이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설명해주고 있다.

4)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요인분석

<표 3>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요인분석 결과(N=161)

커뮤니케이션 유형	요인 1. 유대적 소통		요인 2. 도구적 소통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8. 나는 나의 중요한 결정사안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0.817**	**0.785**	0.167	0.042
7.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0.813**	**0.775**	0.058	0.052
5.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나의 매우 비밀스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0.811**	**0.771**	0.146	0.039
4. 나는 내가 가진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와 이야기한다.	**0.807**	**0.787**	0.049	-0.063
11. 나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아버지/어머니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0.734**	**0.681**	-0.065	-0.176
12.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그날의 컨디션에 대해 이야기 한다.	**0.727**	**0.755**	0.003	-0.108
3.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눈다.	**0.715**	**0.720**	-0.035	-0.029
9.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	**0.668**	**0.700**	-0.160	-0.120
13.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때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한다.	**0.631**	**0.597**	-0.047	0.062
2. 아버지/어머니가 무엇을 하자고 제안했을때 나는 흔쾌히 따르겠다고 말한다.	**0.486**	**0.460**	-0.175	-0.137
6.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어머니와 대화한다.	-0.080	0.024	**0.658**	**0.716**
10. 나는 용돈을 받고 나면 아버지/어머니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다.	-0.008	-0.091	**0.702**	**0.626**
1.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이유나 설명없이 돈을 달라고 말한다.	0.035	-0.021	**0.364**	**0.368**
아이겐 값(Eigen Value)	5.298	5.077	1.185	1.105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13 개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를 회전시킨 인자분석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총 13 개의 항목이 2 개의 요인으로 구별되었다. <표 3>에서와 같이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모두에서 일치하는 요인이 나타났다.

전체 변량의 57.7%(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55.7%(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가 2 개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요인 1 은 '나는 나의 중요한 결정사안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나의 매우 비밀스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나는 내가 가진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와 이야기한다' 등 10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대적 소통'으로 명명하였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이해, 연대의식 및 친밀감 향상, 협동강화를 통한 결속력 제고 등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면서 얻을 수 있는 상호작용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요인 1 은 전체변량의 44.1%(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42.6%(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를 설명한다.

요인 1 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값을 합하여 유대적 소통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부여하였다. 20 개의 문항(아버지 관련 문항 10 개와 어머니 관련 문항 10 개)에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뢰계수(Cronbach's alpha)가 .943 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 2 는 3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어머니와 대화한다', '나는 용돈을 받고 나면 아버지/어머니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이유나 설명없이 돈을 달라고 말한다'의 항목이 포함되며, 해당 요인을 '도구적 소통'으로 명명하였다. 이것은 부모-자녀 간 내면의 감정 교류가 거의 없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 나누는 소통의 유형으로 친밀감의 수준이 낮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다. 요인 2 는 전체 변량의 13.6%(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13.1%(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를 설명한다. 요인 2 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값을 합하여 도구적 소통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부여하였다. 6 개의 문항(아버지 관련 문항 3 개와 어머니 관련 문항 3 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98 로 높게 나타났다.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측정 자료의 검토

1. 응답자의 속성

분석에 이용된 설문의 응답자 속성은 <표 4>, <표 5> 와 같다.

<표 4> 자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N=182)

구분		사례 수	백분율 (%)
성별	남성	120	65.9
	여성	62	34.1
학년	중 1	23	12.6
	중 2	79	43.4
	중 3	80	44.0
형제관계	없음	17	9.3
	남동생	49	26.9
	여동생	33	18.1
	오빠/형	39	21.4
	언니/누나	33	18.1
	기타	11	5.8
주거형태	부모님 모두와 함께	175	96.2
	아버지와만	4	2.2
	어머니와만	3	1.6
가족 구성원 수	3	14	7.7
	4	137	75.3
	5	25	13.7
	6	6	3.3

자녀 응답자는 남학생 120 명(65.9%)와 여학생 62 명(34.1%)로 구성되었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 3 학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 학년, 1 학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15.29 세였다. 응답자의 96.2%가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와만 거주하는 자녀는 4 명(2.2%), 어머니와만 거주하는 자녀는 3 명(1.6%)로 분석 대상자 100%가 부모 중 한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특징을 보였다. 가족 구성원 수를 살펴보면,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4 인 가족 형태가 75.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 인 가족, 3 인 가족, 6 인 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N=163)

구분		사례 수	백분율(%)
성별	남성	50	30.7
	여성	113	69.3
나이	38~40	6	3.7
	41~42	18	11.0
	43	18	11.0
	44	22	13.5
	45	21	12.9
	46	25	15.3
	47	18	11.0
	48	12	7.4
	49	12	7.4
	50~60	11	6.7
경제형편	하	5	3.1
	중하	53	32.5
	중상	93	57.1
	상	12	7.4
학력	중학교	2	1.2
	고등학교	33	20.2
	2-3 년제 전문대	22	13.5
	4 년제 대학	94	57.5
	대학원	12	7.4

부모 응답자는 아버지 50 명(30.7%)와 어머니 113 명(69.3%)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응답자의 나이는 38 세부터 60 세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나이는 45.44 세였다. 경제형편별 분포를 보면 중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8 명(57.1%)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 53 명(32.5%), 상 12 명(7.4%), 하 5 명(3.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4 년제 대학교 졸업한 응답자가 94 명(57.7%)으로 제일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2-3 년제 전문대 졸업,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2. 영상콘텐츠 시청가능 매체 보유 대수

<표 6> 영상콘텐츠 시청 가능 매체 보유대수 (N=182)

구분	TV	PC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렛 PC	노트북
없음	15 (8.2%)	18 (9.9%)	3 (1.6%)	114 (62.6%)	60 (33.0%)
1 대	108 (59.3%)	110 (60.4%)	7 (3.8%)	53 (29.1%)	90 (49.5%)
2 대	57 (31.3%)	45 (24.7%)	16 (8.8%)	13 (7.1%)	25 (13.7%)
3 대	1 (0.5%)	7 (3.8%)	41 (22.5%)	2 (1.1%)	6 (3.3%)
4 대 이상	1 (0.5%)	2 (1.1%)	115 (63.2%)	0 (0.0%)	1 (0.5%)
합계	182	182	182	182	182
평균 보유대수	1.26	1.27	3.48	0.47	0.89

가정 내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매체의 소유 정도는 <표 6>에 제시되어있다. TV 수상기를 1 대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9.3%를 차지하였고, 2 대를 보유한 가구는 31.3%로 뒤를 이었다. TV 수상기를 제외한 영상콘텐츠 시청 가능 매체를 PC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렛 PC,

노트북으로 분류하여 보유대수를 측정한 결과 스마트폰 보유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당 스마트폰 평균 보유대수는 3.48 대로 나타났으며 TV 수상기와 PC 컴퓨터는 각각 1.26 대와 1.27 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노트북의 가구 당 평균 보유대수는 0.89 대로, 태블렛 PC 의 가구 당 평균 보유대수는 0.47 대로 나타났다.

3.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을 구한 결과 아래와 같았다.

<표 7>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값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독시청	182	0.84	1.49	0	19
공동시청	182	0.43	0.39	0	2.571
시청 중 아버지와 소통	182	3.04	1.14	1	6
시청 중 어머니와 소통	181	3.47	1.11	1	6
시청 후 아버지와 소통	181	2.90	1.08	1	6
시청 후 어머니와 소통	182	3.11	1.10	1	6
자녀에 대한 만족도	163	80.66	13.94	30	100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	182	35.21	6.27	17	49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	182	37.36	5.85	17	49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182	39.30	6.26	26	55
커뮤니케이션 유형: 아버지와 도구적 소통	182	6.82	2.83	3	18
커뮤니케이션 유형: 어머니와 도구적 소통	182	6.91	2.83	3	18
커뮤니케이션 유형: 아버지와 유대적 소통	182	25.02	7.04	9	48
커뮤니케이션 유형: 어머니와 유대적 소통	182	27.09	6.69	12	48

4. 상관분석 결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단독시청(A)														
공동시청(B)	.379**													
시청 중 아버지와 소통(C)	-.193**	.211**												
시청 중 어머니와 소통(D)	-0.131	.213**	.572**											
시청 후 아버지와 소통(E)	-.192**	.165*	.666**	.523**										
시청 후 어머니와 소통(F)	-0.069	.276**	.499**	.649**	.643**									
자녀에 대한 만족도(G)	-0.005	.309**	.236**	.282**	.167*	.259**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H)	0.028	.271**	.552**	.439**	.446**	.396**	.309**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I)	0.016	.357**	.481**	.650**	.396**	.521**	.386**	.696**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J)	-0.049	.309**	.426**	.503**	.367**	.439**	.393**	.437**	.535**					
커뮤니케이션 유형: 아버지와 도구적 소통(K)	.205**	-0.032	-.250**	-.327**	-.149*	-.163*	-.330**	-.223**	-.260**	-.231**				
커뮤니케이션 유형: 어머니와 도구적 소통(L)	0.003	-0.1	-.254**	-.234**	-.187*	-0.107	-.306**	-.279**	-.234**	-.264**	.810**			
커뮤니케이션 유형: 아버지와 유대적 소통(M)	0.091	.301**	.582**	.456**	.544**	.438**	.256**	.717**	.569**	.476**	-0.02	-.146*		
커뮤니케이션 유형: 어머니와 유대적 소통(N)	-0.029	.289**	.485**	.673**	.424**	.641**	.329**	.529**	.741**	.547**	-.194**	-0.078	.681**	

<표 8> 변인 간 상관관계 (N=161)

<표 8> 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인 공동시청과 단독시청,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시청 중/후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유형인 도구적 소통과 유대적 소통,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의 상관계수와 그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독시청과 시청 중 아버지와의 소통, 단독시청과 시청 후 아버지와의 소통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단독으로 시청하는 정도가 높은 아버지-자녀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정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단독시청과 아버지와의 도구적 소통 역시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시청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공동시청과 시청 중/후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역시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과 공동시청은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유대적 소통과 공동시청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독시청과 달리 공동시청과 부모-자녀 간 유대적 소통이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공동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유대적 소통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와 자녀가 어머니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만족도와 자녀가 아버지/어머니에게 느끼는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어머니에게 느끼는 만족도에 있어 조금 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대게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자연스럽게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과 유대적 소통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한 관점, 즉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부모-자녀 간 낮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암시하는 도구적 소통과 높은 신뢰와 이해심을 바탕으로하는 유대적 소통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2 가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각각 고유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독립된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1. 회귀분석 결과

실제적으로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시청 중/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성별, 나이, 가족 구성원 수, 경제형편, 학년, 형제자매로 측정된 인구 사회적 요인을 우선 투입하고 관련 요인들을 단계별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대하여 각각 모형 설명량의 변화와 각 요인들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2.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연구문제 1 의 분석결과

<연구 문제 1> 이하의 가설들과 관련하여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인 단독시청과 공동시청의 정도에 따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성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 1 에는 응답자의 성별, 나이, 가족 구성원 수, 경제형편, 학년, 형제자매를 투입하였다. 단계 2 에는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관련 변인인 단독시청과 공동시청 정도를 투입하여 모형 설명량의 변화와 각 요인들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표 9>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N=161)

		모델 1	모델 2
단계 1	성별	.135+	.076
	나이	−.625***	−.602***
	가족 구성원 수	.069	.100
	경제형편	.182*	.153*
	학년	.558***	.533***
	형제자매	.009	.029
단계 2	단독시청		−.156*
	공동시청		.359***
R^2		.111	.209
R 변화량		.111***	.099***
F		4.777***	6.989***

+ $p \leq .1$,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표 9> 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공동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ß = .359, p ≤ .001)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시청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ß = −.156, p ≤ .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청과 반대 개념인 단독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설 1−1>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 중 공동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연구문제 2 의 분석결과

<연구 문제 2> 의 가설들과 관련하여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성향을 통제하기 위해 단계 1 에는 응답자의 성별, 나이, 가족 구성원 수, 경제형편, 학년, 형제자매를 투입하였다. 단계 2 에는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 관련 변인인 단독시청과 공동시청 정도를 투입하였다. 단계 3 에는 시청 중 아버지와의 소통과 시청 중 어머니와의 소통, 시청 후 아버지와의 소통과 시청 후 어머니와의 소통을 투입하여 모형 설명량의 변화와 각 요인들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표 10>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161)

		모델 1	모델 2	모델 3
단계 1	성별	.135+	.076	0.090
	나이	−.625***	−.602***	−0.552***
	가족 구성원 수	.069	.100	.099
	경제형편	.182*	.153*	.100
	학년	.558***	.533***	0.445***
	형제자매	.009	.029	.014
단계 2	단독시청		−.156*	−0.028
	공동시청		.359***	0.189**
단계 3	시청 중 아버지와 소통			.150+
	시청 중 어머니와 소통			.238**
	시청 후 아버지와 소통			−.014
	시청 후 어머니와 소통			.157+
R^2		.111	.209	.375
R 변화량		.111***	.098***	.166***
F		4.777***	6.989***	10.048***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10> 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예측 변수 중 시청 중/후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영상콘텐츠 시청 중 아버지와의 소통, 시청 중 어머니와의 소통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각각 ß = .151, p ≤ .1; ß = .258, p ≤ .01)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2−1>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며 아버지, 어머니와 소통하는 것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영상콘텐츠 시청 후 어머니와의 소통은 ß = .174, p ≤ .1 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에 있음이 나타났으나, 시청 후 아버지와의 소통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2-2> 중 영상콘텐츠 시청 후 부모와의 소통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정적인 영향은 어머니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차이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사소한 일에 대한 것까지 대화의 주제로 삼는 방면, 아버지와는 비교적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고 사소한 주제의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문제 3 의 결과

<연구 문제 3> 의 가설들과 관련하여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만족감, 자녀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만족감,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만족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성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단계 1 에는 응답자의 성별, 나이, 가족 구성원 수, 경제형편, 학년, 형제자매를 투입하였고,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 관련 변인인 공동시청 정도를 단계 2 에 투입하여 모형 설명량의 변화와 각 요인들의 유의도를 확인했다.

<표 11> 자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N=161)

		모델 1	모델 2
단계 1	성별	.013	−.022
	나이	−.212	−.195
	가족 구성원 수	−.031	.005
	경제형편	.171*	.159*
	학년	.282+	.267+
	형제자매	.082	.101
단계 2	공동시청		.267***
R^2		.026	.090
R 변화량		.026	.064***
F		1.793	3.570***

+ p ≤ .1,* p ≤ .05,** p ≤ .01, *** ≤ .001

<표 12>자녀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N=161)

		모델 1	모델 2
단계 1	성별	.052	.005
	나이	−.256	−.234
	가족 구성원 수	.035	.083
	경제형편	.228**	.212**
	학년	.295+	.274+
	형제자매	.057	.083
단계 2	공동시청		.356***
R^2		.049	.168
R 변화량		.049*	.119***
F		2.548*	6.217***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13>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N=161)

		모델 1	모델 2
단계 1	성별	−.050	−.092
	나이	−.206	−.225
	가족 구성원 수	.006	.053
	경제형편	.160*	.143+
	학년	.162	.177
	형제자매	.047	.093
단계 2	공동시청		.336***
R^2		.001	.104
R 변화량		.001	.103***
F		1.030	3.678***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14>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느끼는 만족감 상관관계

	아버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만족감	어머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만족감
아버지가 자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	.414** (N=50)	
어머니가 자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		.366** (N=111)

N=16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표 12>, <표 13>, <표 14> 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자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과 자녀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각각 ß = .267, p ≤ .01; ß = .356, p ≤ .01),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에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인 공동시청(ß = .336, p ≤ .01)이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설문에 응답하기 때문에 자녀가 응답한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세트로 받은 설문지에 한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r= .414, 어머니-자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r = .366 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과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이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설 3-1>, <가설 3-2>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를 공동으로 시청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문제 4 의 결과

<연구 문제 4> 의 가설들과 관련하여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소통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만족감, 자녀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만족감,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만족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성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 1 에는 응답자의 성별, 나이, 가족 구성원 수, 경제형편, 학년, 형제자매를 투입하였고,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 관련 변인인 공동시청 정도를 단계 2 에 투입하였다. 단계 3 에는 시청 중 아버지와의 소통과 시청 중 어머니와의 소통, 시청 후 아버지와의 소통과 시청 후 어머니와의 소통을 투입하여 모형 설명량의 변화와 각 요인들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표 15>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아버지와의 소통: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161)

		모델 1	모델 2	모델 3
단계 1	성별	.013	−.031	−.028
	나이	−.212	−.193	−.106
	가족 구성원 수	−.031	.002	.018
	경제형편	.171*	.152*	.136+
	학년	.282+	.264+	.102
	형제자매	.082	.100	.082
단계 2	단독시청		−.069	.113
	공동시청		.295***	.098
단계 3	시청 중 아버지와 소통			.400***
	시청 중 어머니와 소통			.109
	시청 후 아버지와 소통			.092
	시청 후 어머니와 소통			.034
R^2		.026	.089	.341
R 변화량		.026	.063***	.252***
F		1.793	3.219**	8.801***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16>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어머니와의 소통: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161)

		모델 1	모델 2	모델 3
단계 1	성별	.052	−.009	.016
	나이	−.256	−.231	−.151
	가족 구성원 수	.035	.077	.066
	경제형편	.228***	.201***	.121*
	학년	.295+	.269+	.151
	형제자매	.057	.082	.068
단계 2	단독시청		−.11	.048
	공동시청		.400***	.187***
단계 3	시청 중 아버지와 소통			.162*
	시청 중 어머니와 소통			.443***
	시청 후 아버지와 소통			−.072
	시청 후 어머니와 소통			.136+
R^2		.049	.174	.485
R 변화량		.049*	.126***	.311***
F		2.548*	5.754***	15.214***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15>, <표 16> 는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영상콘텐츠 시청 중/후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도중의 아버지와의 소통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ß = .400, p ≤ .01),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도중의 어머니와의 소통과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ß = .433, p ≤ .01)는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고난 후 어머니와의 소통과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ß = .136, p ≤ .1)도 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상콘텐츠 시청 후 아버지와의 소통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4-1> 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가설 4-2>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 유대적)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문제 5 의 결과

<연구 문제 5> 의 가설들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성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 1 에는 응답자의 성별, 나이, 가족 구성원 수, 경제형편, 학년, 형제자매를 투입하였고,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인 도구적 소통과 유대적 소통을 아버지와의 소통에 대한 경우와 어머니와의 소통에 대한 경우를 선택적으로 단계 2 에 투입하였다.

<표 17>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 유대적)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161)

		모델 1	모델 2
단계 1	성별	.013	−.009
	나이	−.212	−.096
	가족 구성원 수	−.031	.007
	경제형편	.171*	.033
	학년	.282+	.123
	형제자매	.082	.055
단계 2	도구적 소통		−.201***
	유대적 소통		.701***
R^2		.026	.545
R 변화량		.026	.519***
F		1.793	28.091***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18>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 유대적)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161)

		모델 1	모델 2
단계 1	성별	.052	−.068
	나이	−.256	−.225*
	가족 구성원 수	.035	.047
	경제형편	.228***	.098*
	학년	.295+	.248*
	형제자매	.057	.039
단계 2	도구적 소통		−.158***
	유대적 소통		.724***
R^2		.049	.593
R 변화량		.049*	.544**
F		2.548*	33.992**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17>, <표 18> 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은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ß = -.201, p ≤ .01; ß = -.158, p ≤ .01)와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도구적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도구적 소통을 많이 할수록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5-1> 을 기각한다.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유대적 소통은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ß = .701, p ≤ .01; ß = .724, p ≤ .01)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대적 소통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가설 5-2>이 채택되었다.

<가설 5-3> 의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보이는 정적 상관 관계는 도구적 소통이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나, 도구적 소통과 유대적 소통의 강도는 유대적 소통, 도구적 소통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대적 소통 유형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인 공동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연구문제 6>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 중 공동시청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을 각각 표준화하고 두 변인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단계 1 에는 성별, 형제자매, 나이, 학년, 가족 구성원 수, 경제형편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했다. 단계 2 에는 표준화된 공동시청 정도와 부모별 도구적 소통, 유대적 소통을 투입했 단계 3 에는 도구적 소통 또는 유대적 소통과 공동시청 정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다. 앞서 회귀분석을 통해 영상콘텐츠 시청방식 중 공동시청의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해 공동시청의 정도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이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9>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와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N=161)

		모델 1	모델 2	모델 3
단계 1	성별	.013	-.017	-.037
	형제자매	.082	.06	.033
	나이	-.212	-.095	-.08
	학년	.282+	.123	.115
	가족 구성원 수	-.031	.014	.009
	경제형편	.171*	.033	.025
단계 2	공동시청(A)		.065	.759***
	아버지와 도구적 소통(B1)		-.198***	-.162*
	아버지와 유대적 소통(B2)		.683***	.872***
단계 3	A*B1			-.045
	A*B2			-.755***
R^2		.026	.546	.575
R 변화량		.026	.52***	.029***
F		1.793	25.203***	23.281***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20>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공동시청의 정도와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도구적 소통 · 유대적 소통)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N=161)

		모델 1	모델 2	모델 3
단계 1	성별	.052	−.082+	−.087+
	형제자매	.057	.051	.035
	나이	−.256	−.218*	−.212*
	학년	.295+	.243*	.244*
	가족 구성원 수	.035	.069	.059
	경제형편	.228**	.099*	.103*
단계 2	공동시청(A)		.163**	.584+
	어머니와 도구적 소통(B1)		−.142***	−.174*
	어머니와 유대적 소통(B2)		0.683**	.785***
단계 3	A*B1			.066
	A*B2			−.526+
R^2		.049	.615	.619
R 변화량		.049*	.566***	.004
F		2.548*	33.184***	27.769***

+ $p \leq .1$,* $p \leq .05$,** $p \leq .01$, *** $p \leq .001$

<표 19>, <표 20> 는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예측 변수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해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 중 공동시청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유대적 소통의 상호작용항(A*B2)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대적 소통이 공동시청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도 발견되었지만, 그 크기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보다 작다는 차이가 있었다.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그 조절효과의 유의성 및 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반면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해 영상콘텐츠 시청 방식 중 공동시청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의

상호작용항(A*B1)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공동시청과 도구적 소통의 상호작용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은 공동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8.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 분석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유대적 소통)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연구문제 6>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조절 다중회귀 분석에 따른 조절 효과의 유무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앞서 회귀 분석 결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대상으로 유대적 소통만이 공동시청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제적인 상호작용 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차적으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1>과 <표22>은 단순 기울기 분석을 위해 앞서 도출된 회귀식을 바탕으로 한 검증 통계지 t 값과 각각의 기울기 값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 21>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Ⅰ (N=161)

중심화 계수 조절량 (아버지-자녀 간 유대적 소통)	표준화	t	표준오차	유의확률
low(-1SD)	.883	4.772	2.973	.000
high(+1SD)	.824	4.767	2.778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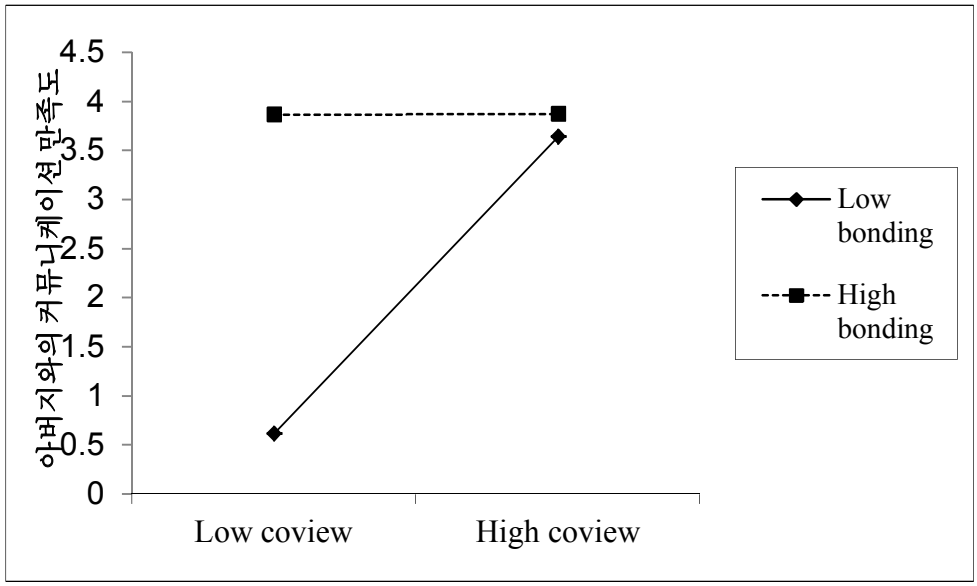
독립변수: 공동시청
종속변수: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 $p < .05$, ** $p < .01$

<표 22>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Ⅱ (N=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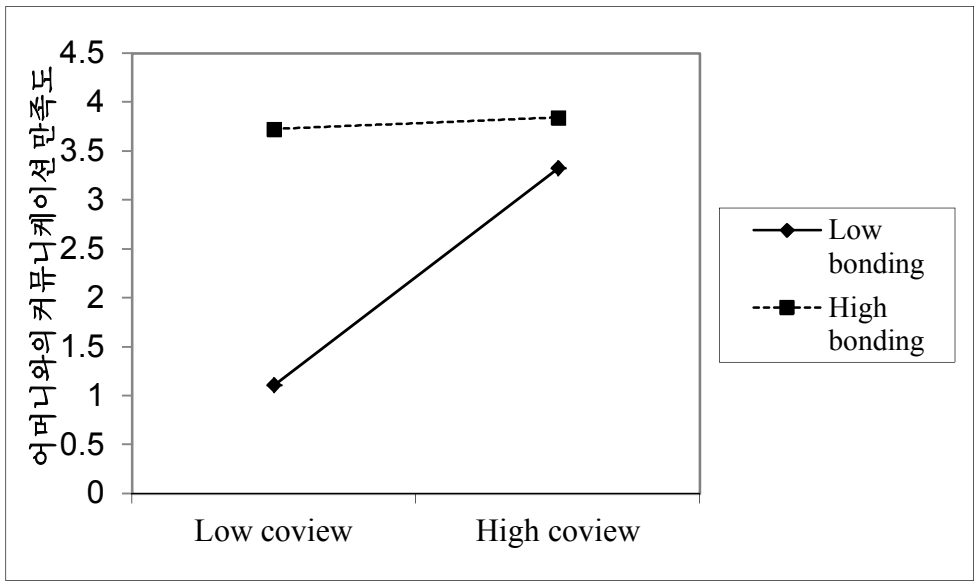
중심화 계수 조절량 (어머니-자녀 간 유대적 소통)	표준화	t	표준오차	유의확률
low(-1SD)	.777	2.772	4.205	.006
high(+1SD)	.734	2.806	3.921	.006

독립변수: 공동시청
종속변수: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 $p < .05$, ** $p < .01$

단순 기울기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유대적 소통의 수준이 낮은 부모-자녀는 공동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유대적 소통의 수준이 높은 부모-자녀는 공동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앞의 논의와 결부되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의 설명에 있어서 유대적 소통이 낮은 부모-자녀에게 공동시청이 큰 영향력 있음을 더욱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상호작용 그래프 I



<그림 3> 상호작용 그래프Ⅱ

유대적 소통이 높은 부모-자녀에게는 공동시청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대적 소통이 낮은 부모-자녀에게는 공동시청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에 따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미미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공동시청이 유대적 소통이 적은 부모-자녀 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집에 가서 TV 를 켜던 시절은 지났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주머니에서 미디어 기기를 꺼내 TV 콘텐츠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나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시대의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의 양은 무궁무진하다. 이같이 엄청난 양의 영상콘텐츠가 활발히 생산되며 공유되고 있는 현상은 이를 시청할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도구의 다양화와 함께 이를 이용하는 시청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영상콘텐츠 시청방식의 변화가 부모와 자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가족 내 부모와 자녀가 인지하고 행동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유대적 소통과 도구적 소통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재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양질의 가족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미디어 연구자로서 매체의 효과를 규명하고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여 미디어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영상콘텐츠 시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TV 를 시청매체로 한정하였고, 연구의 주 분석단위를 수용자 개인으로 한정 지어왔다. 그러나 가족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이니만큼, 가족 단위의 영상콘텐츠 시청행위 및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인들이 개인화되어가면서 보이는 새로운 가치관에 의미를 부여하여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재정비한 것도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차별성을 지닌다. 가족의 개인화와 파편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에 영상콘텐츠 시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가족의 기증을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먼저 주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공동시청이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구성원들과 공동시청의 정도가 높은 자녀들이 더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중 아버지와의 소통, 시청하는 중 어머니와의 소통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며 아버지, 어머니와 소통하는 것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콘텐츠를 시청한 후 어머니와의 소통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에 있음이 나타났으나, 영상콘텐츠를 시청한 후 아버지와의 소통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콘텐츠 시청 후 부모와의 소통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정적인 영향은 어머니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공동시청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큰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보였고, 부모 역시 자녀에게 더 큰 만족도를 보였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과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감이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를 공동으로 시청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중 아버지와의 소통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중 어머니와의 소통과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상콘텐

츠를 시청하며 아버지, 어머니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높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고난 후 어머니와의 소통과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도 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상콘텐츠 시청 후 아버지와의 소통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은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자녀 간 도구적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아버지,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유대적 소통은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어머니-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대적 소통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보이는 정적 상관 관계는 도구적 소통이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나, 도구적 소통과 유대적 소통의 강도는 유대적 소통, 도구적 소통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대적 소통 유형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공동시청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아버지-자녀 간 유대적 소통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유대적 소통이 공동시청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도 발견되었지만, 그 크기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보다 작게 나타났다. 반면 공동시청과 아버지-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아버지-자녀 간 도구적 소통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공동시청과 도구적 소통의 상호작용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도구적 소통은 공동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해석 및 함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로부터 공동시청과 시청 중 소통은 가족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존 다수의 연구가 TV 공동시청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논의하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시청이 가족의 높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공동시청이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기존 다수 연구결과에 보편성 및 일반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 공동시청의 개념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공동시청 중/후에 발생하는 소통이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긍정적 영향에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포함시키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이명일(1989)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학습으로 길러지기보다 언어능력을 기르면서 이를 외부로 표현하는 활용능력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부모와 나누는 대화를 토대로 자녀는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간추리면 공동시청과 시청 중/후의 커뮤니케이션은 현대인들의 원활한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에도 매우 바람직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2 가지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각각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도구적 소통과 유대적 소통이라는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가 단순한 필요에 의해 나누는 소통인 도구적 소통의 경우 서로 목적의식을 갖고 나누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도구적 소통이 많을수록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고 이해하며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적 소통의 경우, 서로 간 친밀한 수준이 높으며 믿고 따르는 마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기 때문에 유대적 소통이 많을수록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유대적 소통을 많이 나누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높은 만족도를 갖고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자녀의 장기적인 행복과 적응, 성장, 교육 성취, 사회적 성공 등의 중요한 척도가 됨(Thornton, Orbuch, & Axinn, 1995)은 입증된 바가 있으므로 이 결과는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대적 소통의 중요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자녀 간 유대적 소통이 영상콘텐츠 시청방식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조절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의의를 가진다. 유대적 소통의 수준이 낮은 부모-자녀에게 공동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유대적 소통의 수준이 높은 부모-자녀는 공동시청이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공동시청이 현대사회 가족에게 접착제와 같은 기제(mechanism)임을 증명한다. 공동시청이라는 행위가 해체되고 느슨해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동시청은 가족을 묶어내고 재생시키는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커뮤니케이션에서 공동시청의 긍정적 역할을 재확인 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결부시킴으로써 기존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가족 내 영상콘텐츠 시청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함에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가족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조합에 따라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형제자매 간의 관계 등이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 단순히 한 쪽의 입장만 고려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단편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스키너, 스테인하워와 샌타바버라(Skinner, Steinhauer, & Santa Barbara, 1983)는 가족 연구는 연구 대상에 맞춰 각기 다른 연구법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해당하는 관계의 모든 대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인식을 모두 측정하여 연구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와 자녀를 짝으로 하는 설문대상을 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어 표본이 비교적 작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 더 많은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면 연구 가설에 명확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 외의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하여 가족 내 역할에 따른 세분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 모델로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응답자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부분과 영상을 시청하는 부분을 완벽히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이용해야 하는데, 미디어를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우 영상시청 시간과 검색 및 기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을 구분하여 정확한 시간을 인지하는 것에 혼돈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의 정도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 추후에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시청시간 및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작성하도록 하는

연구 방법은 응답 및 연구결과가 실제 현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어렵게 한다. 설문은 통해 얻어진 응답은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입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응답자 개인의 인식과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족에서 보이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익명으로 이루어진 설문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특정 이미지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개인의 회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이 가족을 직접 관찰하고 심층 인터뷰하는 등의 연구방법을 취하였던 데에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이해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개념을 투입하고 이를 적용하여 가족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지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비록 분석대상을 모집하는 데 한계를 보였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 내 공동시청과 단독시청의 경향을 파악하고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및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관련지음으로써 기존 연구결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 내 영상콘텐츠 공동시청과 시청 중/후에 부모와 나누는 대화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 부모와 자녀가 도구적 소통보다 유대적인 소통을 많이 할수록 높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더불어 공동시청과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해 유대적 소통을 많이하는 가정에서 만족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상콘텐츠를 가족이 공동으로 시청함으로써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대변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족이 서로 만족하는 관계를 조성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영상콘텐츠 시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택(2012).『연대주의; 모다니즘 넘어서기』. 서울: 한길사.

고경애・정민정(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권 2호, 301-320.

국길순(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동(2008.06.11). 대화부족 가정, 소통단절 이웃. 문화일보, Available: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61101030927062002

김범종・김진호・김인숙・이민구(1999). 한국인의 텔레비전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 가족 간 공동시청의 역학을 중심으로.『한국생활과학회지』, 8권 2호, 399-417.

김여진(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외숙(1991). 도시 기혼 여성의 여가 활동 참여와 여가 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미・정화음(2006).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권 2호, 125-161.

김영선(2010).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硏究』, 18권 2호, 99-108.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김의철・ 박영신(2003).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김정희(1988).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충환(2012).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방송 및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변화 연구: 전통적 TV및 모바일스마트기기 간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선・선우현정(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청소년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청소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대한가정학회지』, 49권 6호, 109-122.

나은영(2001).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개인중심성, 즉시성 및 직접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189-228.

나은영(2002).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남궁은정・한주리・허경호(2008). 연구논문: 대학생의 갈등 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완벽주의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화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5권 1호, 357-380.

문화관광부(2006). 여가실태조사.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아동학회지』, 13권 1호, 112-124.

박수원(2003).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방송위원회(2006). TV 시청 행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12). 방송매체이용행태.

방송통신위원회(2012). 유,무선 가입자 통계 자료.

방순화(2005).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가정 내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백미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현 (2010.04.05). 소통의 중요성. 여행신문.

범기수・김은정(2011). 부모의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효(孝)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261-283.

변영인(2010). 청소년기 가족의 관계개선을 위한 의사소통에 관한 고찰. 『복음과 상담』,14권, 130-158.

삼성경제연구소(2010). 스마트폰이 열어가는 미래.

성동규・김인경(2011). 다중매체 이용실태에 따른 광고전략 연구: 심층 인터뷰를 통한 20~30대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2호, 247-284.

손지혜(2013). '무엇이 되는 삶'과 '어떻게 사는 삶'. 『언론정보연구』, 50권 1호, 193-229.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정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일진・김태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 1호, 27-44.

신해진・김진호(1996). 텔레비전 공동시청의 영향요인과 특성 연구. 『광고연구』. 가을호, 9-26.

신호창・전정미・나진균(2007). 조직적 맥락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직업만족도의 관계: 한국 프로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홍보학 연구』, 11권 2호, 34-62.

유영주(1993). 가족연구의 학문별 접근방법2: 가정학에서의 가족연구. 『가족학논집』, 5권, 189-200.

윤미애(2003).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석근(2012). 태블릿PC의 이용동기와 이용핸태에 관한 연구: 이용과 충족 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정호(2001). 텔레비전 시청시간량의 결정 메커니즘.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229-263.

오하영(2007). 다매체 환경에서 가족의 TV공동시청에 관한 연구: 여대생 집단을 중심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권 석사학위논문.

옥선화(1985). 家族스트레스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에 관한 硏究.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권1호, 79-92.

이금·박옥임·이경주(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4권, 16-25.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6).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권 3호, 113-126.

이명일(1989). Communicative competence 증진을 위한 영어교육.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혜(2006). 여대생들의 디지털 정보미디어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지』, 5호, 201-231.

이승미(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 지』, 16-2호. 123-136.

이은미(1995). 텔레비전 시청과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연구: 대수선형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4호, 171-190.

이정우·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권 3호, 147-159.

이정숙·김국태·박창균 (2010). 한국 부모-자녀 대화의 소통 방식.『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권 3호, 343-372.

이지민(200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구조”.『한국생활과학학회지』, 18권 5호, 1021-1033.

이진숙(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2권 3호, 47-61.

이창덕(2006). 한국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9권, 351-388.

이창숙(1987).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해순(2003). 갈등관리전략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정보학보』, 23 호, 113-151.
조윤경・김영석(2009). 청소년의 TV ・인터넷 이용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가족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디어 능력의 중재효과.『한국방송학보』, 23-5호, 380-417.
정미선(2003). 친밀한 관계에서의 대화 및 매체의 이용이 대인간 결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인관계와 친구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민아・신우열・박민아・김주환(2009).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를 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회복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을 통해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역할.『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199-220.
최상진・김혜숙・유승엽(1994).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65-82.
최상진(2000).『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인재(2006).『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연구』(연구보고 06-R2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정보화 실태조사.
한상연・마은정・최수건・홍대순(2011).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정보와 사회』, 20권. 49-84.
한주리・허경호(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202-227.
Albrecht, T. L., & Adelman, M. B. (1987).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An introduction. In T. L. Albrecht & M. Adelman (Eds.), *Communicating social support* (pp. 13-16). Newbury Park, CA: Sage.

Atkin, D. J., Greenberg, B. S., & Baldwin, T. F. (1991). The home ecology of children's televison viewing: parental mediation and the new video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41*(3), 40-052.

Bassett, R. E., & Boone, M. E. (1983). Improving speech communication skills: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In R. B. Rubin (Ed.), *Improving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pp. 83-93). San Francisco: Jossey-Bass.

Barker, L. L, & Guat, D. A. (2001). *Communication*. Boston, MA: Allyn and Bacon.

Bower, R. T. (1973). *Television and the Public* (pp. 65-69).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Buerkel-Rothfuss, N. L., Fink, D. S., & Buerkel, R. A. (1995). Communication in the father-child dya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In T. J. Socha & G. H. Stamp (Eds.), *Parents, children, and communication: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pp. 63-8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ray, J. H. (1995). Family assessment: Current issues in evaluating families. *Family Relations*, *44*(4), 469-477.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Bybee, C. R., Robinson, D., & Turow, J. (1982). Determinants of parental guidance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for a special subgroup: Mass media schola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6*(3), 697-710.

Canary, D. J., Cody, M. J., & Manusov, V. (200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 goals-based approach.* New York, NY: Bedford/St.

Chaffee, S. H., McLeod, J. M., & Wackman, D. B. (1973).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J. Dennis (Ed.), *Socialization to politics: A reader* (pp. 349-364). New York, NY: Wiley.

Cho, C. H., & Cheon, H. J. (2005). Children's exposure to negative Internet content: effects of family contex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4), 488-509.

Comstock, G. (1978). *Television and human behavior.*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New York, NY: Plenum Press.

Duck, S., & Pond, K. (1989). *Friends, Romans, countrymen, lend me your retrospections: Rhetoric and reality in personal relationship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Duran, R. L., & Kelly, L. (1994). The role of social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1*(2), 119-126.

Faules, D. F., & Alexander, D. C. (1978). *Communication and social behavior: A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 Reading: Addison-Wesley.

Fitzpatrick, M. A., & Ritchie, L. D. (1994). Communication schemata within the famil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0*(3), 275-301.

Ford, W. S. Z., & Wolvin, A. D. (1993). The differential impact of a basic communication course on perceived communication competencies in class, work, and social contexts. *Communication Education*, *42*(3), 215-223.

Gatenby, R. (2004). Married only at the weekends? A study of the amount of time spent together by spouses.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www.statistics.gov.uk/cci/article.asp?id=931

Gantz, W. (1985). Exploring the role of television in married lif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9*(1), 65-78.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Glenview, IL: Scott, Foresman.

Goldsmith, D. J., & Baxter, L. A. (1996). Constituting relationships in talk a taxonomy of speech events in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1), 87-114.

Goldsmith, D. J., McDermott, V. M., & Alexander, S. C. (2000). Helpful, supportive and sensitive: Measuring the evaluation of enacted social suppor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3), 369-391.

Gordon, T. (1977). *What every parent should know*. Chicago, IL: National

Committee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Gottman, J. M., Markman, H. J., Gonso, J., & Notarius, C. (1976). *A couple's guide to communication*. Champaign, IL: Research Press.

Hays, R. B. (1984).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75-98.

Holman, T. B., & Epperson, A. (1984). Family and leisu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research recommend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4), 277-294.

Johnsson-Smaragdi, U. (1983). *TV use and social interaction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Kate, N. T. (1999). Public Opinion; Cell Phone Attitudes. *American Demographics*, *19*(6), 32-50.

Kelly, H. H., Berscheid, E., Christensen, A., Harvey, J. H., Huston, T. L., Levinger, G., & Peterson, D. R. (1983).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NY: WH Freeman. ingston, P. W., & Nock, S. L.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91-400.

Krcmar, M. (1996).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discourse behavior, and child television view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2), 251-277.

Lamborn, M. L. (1991).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deans of schools of nursing.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7*(1), 33-40.

Lemish, D., & Rice, M. L. (1986). Television as a talking picture book: A prop for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13*(2), 251-274.

Lerner, R. M., Spanier, G. B., & Aquilino, W. (1978).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NY: Academic Press.

Lesser, G. S. (1974). *Children and Television: Lessons from Sesame Street.* New York, NY: Random House.

Lull, J. (198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social uses of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7*(3), 319-333.

Lyle, J., & Hoffman, H. R. (1972). Explorations in patterns of television viewing by preschool-age children. In E. A. Rubinstein, G. A. Comstock, and J. P. Murray (Eds.),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Television in day-to-day*

life: Patterns of use (vol. 4, pp.257-27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accoby, E. E. (1951). Television: Its impact on school children. *Public Opinion Quarterly*, *15*(3), 421-444.

McLeod, J. M., Atkin, C. K., & Chaffee, S. H. (1972). Adolescents, parents, and television use: Self-report and other-report measures from Maryland and Wisconsin samples. In G. A. Comstock & E. A. Rubinstein (Eds.),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vol. 3, pp.173-23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cLeod, J. M., Fitzpatrick, M. A., Glynn, C. J., & Fallis, S. F. (1982). Television and social relations: Family influences and consequences for interpersonal behavior. In D. Pearl, L. Bouthilet and J. Lazar (Eds.),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89). Theoretical orientations to family stress and coping. In C. R. Figley (Ed.), *Treating stress in families* (pp. 3-43). New York, NY: Brunner/Mazel.

Messaris, P., & Kerr, D. (1983). Mother's comments about TV: Relation to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Communication Research*, *10*(2), 175-194.

Messaris, P., & Sarett, C. (1981). On the consequences of television-related parent-child inter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7*(3), 226-244.

Morley, D. (2006). *Family television: Cultural power and domestic leisure*. New York, NY: Routledge.

Nathanson, A. I. (2001). Parent and child perspectives on the presence and meaning of parental television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2), 201-220.

Olson, D., & Barnes, H. (1982).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rthner, D. K., Mancini, J. A., & Iso-Ahola, S. E. (1980). Leisure behavior and group dynamics: the case of the family. In S. E. Iso-Ahola (Ed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creation* (pp. 307-328). Springfield, IL: Thomas.

Padilla-Walker, L. M., Coyne, S. M., & Fraser, A. M. (2012). Getting a high-speed family connection: Associations between family media use and family connection. *Family Relations*, *61*(3), 426-440.

Parks, M. R. (1994).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ntrol. In M. L. Knapp & G. R. Miller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p. 589-620). Thousand Oaks, CA: Sage.

Punyanunt-Carter, N. M. (2007). Using attachment theory to study satisfaction in father-daughter relationships. *Human Communication*, *10*(2), 103-120.

Rakow, L. (1992). *Gender on the line: Women, the telephone, and community lif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Reid, L. N., & Frazer, C. F. (1980). Children's use of television commercials to initiate social interaction in family viewing situation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4*(2), 149-158.

Riley, M. W., & Riley, J. W. (1951). A sociological approach to communications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15*(3), 445-460.

Roberts, D. F., Foehr, U. G., Rideout, V. J., & Brodie, M. (1999). Kids and the media@ the New Millenium. A Kaiser Family Foundation Report, 1999.

Robertson, J. F., & Simons, R. L. (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25-138.

Robinson, J. P. (1972). Television impact on everyday life: Some cross-national evidence. In E. A. Rubinstein, G. A. Comstock, & J. P. Murray (Eds.),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vol. 4, pp. 410-431). Washington, DC: U.S. Printing Office.

Rosenblatt, P. C., & Cunningham, M. R. (1976). Television watching and family t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05-111.

Rubin, R. B., & Graham, E. E. (1988). Communication correlates of college succes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37*(1), 14-27.

Rubin, R. B., Graham, E. E., & Mignerey, J. T.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Education*, *39*(1), 1-14.

Rubin, R. B., & Rubin, A. M. (1989).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6*(1), 13-20.

Salomon, G. (1977). Effects of encouraging Israeli mothers to co-observe" Sesame Street" with their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48*(1), 1146-1151.

Schrodt, P., & Afifi, T. D. (2007). Communication processes that predict young adults' feelings of being caught and their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and family satisfac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4*(2), 200-228.

Sigman, S. J. (1991). Handling the discontinuous aspects of continuous social relationships: Toward research on the persistence of social forms. *Communication Theory*, *1*(2), 106-127.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4).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Stright, A. D., & Bales, S. S. (2003). Coparenting quality: Contributions of child and parent characteristics. *Family Relations*, *52*(3), 232-240.

Szydlik, M. (2008).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conflic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97-114.

Thayer, L. (1986).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Thornton, A., Orbuch, T. L., & Axinn, W. G. (1995).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6*(5), 538-564.

Walters, J. K., & Stone, V. A. (1971). Television and family communic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15*(4), 409-414.

Watkins, B., Calvert, S., Huston-Stein, A., & Wright, J. C. (1980). Children's recall of television material: Effects of presentation mode and adult labe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72.

Wiemann, J. M., & Backlund, P. (1980).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communicative compet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1), 185-199.

Williams, A., & Giles, H. (1996). Intergenerational conversations young adults' retrospective accoun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2), 220-250.

Williams, A., Ota, H., Giles, H., Pierson, H. D., Gallois, C., Ng, S. H., ... & Harwood, J. (1997). Young people's beliefs about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n initial cross-cultural comparison. *Communication Research*, *24*(4), 370-393.

Valkenburg, P. M., Krcmar, M., Peeters, A. L., & Marseille, N. M. (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3*(1), 52-66.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학생들의 영상시청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처리되어 연구자료로만 사용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니, 편안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각 문항은 옳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을 토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최대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전공

지도교수: 박승관
연구자: 이진희

*** 다음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 별로 측정척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 표시를 해주세요.**

1. **미디어 기기를 이용해서 대략 일주일에 얼마나 영상물을 시청하시나요?**

   대략 일주일에 _____시간 _____분

2. **다음은 TV,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폰, 타블렛, 노트북 등의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1 은 해당 미디어 기기의 소유 여부 및 개수에 관한 질문이고, 항목 2 는 시청 방식에 관한 질문이며, 항목 3 은 시청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지시사항을 잘 읽은 후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항목 1: 소유여부 및 개수 ------- 나열된 각 미디어가 귀하의집에 있는지/없는지, 있다면 몇 대가 있는지 적어주세요.	항목 2: 시청 방식 ---------- 각 미디어를 본인 혼자 보는 정도와 가족구성원(1 명 이상)과 함께 보는 정도에 대해 묻는 항목입니다. 측정척도의 해당 숫자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 미디어를 항상 혼자 본다면 "1"번에, 혼자 보는 정도와 가족과 함께 보는 정도가 비슷하다면 "3"번에, 그리고 항상 가족과 함께 본다면 "5"번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해당 미디어로 영상 프로그램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면 "6"번에 표시해주세요.						항목 3: 시청시간 ---------- 각각의 미디어에 대해, 가족 중 한명 이상과 같이 보는 경우와 혼자보는 경우와 나누어 각 기기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몇 분 정도 영상을 보는지 적어주세요.	
TV	① 있다 → 가정 내 총( )대 ② 없다	1	2	3	4	5	6	같이	혼자
		항상 혼자 본다	대체로 혼자 본다	혼자 보는 정도와 함께 보는 정도가 비슷하다	대체로 함께 본다	항상 함께 본다	TV 를 시청하지 않는다	____분	____분
데스크탑 컴퓨터 (PC)	① 있다 → 가정 내 총( )대 ② 없다	1	2	3	4	5	6	같이	혼자
		항상 혼자 본다	대체로 혼자 본다	혼자 보는 정도와 함께 보는 정도가 비슷하다	대체로 함께 본다	항상 함께 본다	TV 를 시청하지 않는다	____분	____분

☞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미디어	항목 1: 소유여부 및 개수 ------- 나열된 각 미디어가 귀하의집에 있는지/없는지, 있다면 몇 대가 있는지 적어주세요.	항목 2: 시청 방식 ---------- 각 미디어를 본인 혼자 보는 정도와 가족구성원(1 명 이상)과 함께 보는 정도에 대해 묻는 항목입니다. 측정척도의 해당 숫자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 미디어를 항상 혼자 본다면 “1”번에, 혼자 보는 정도와 가족과 함께 보는 정도가 비슷하다면 “3”번에, 그리고 항상 가족과 함께 본다면 “5”번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해당 미디어로 영상 프로그램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면 “6”번에 표시해주세요.						항목 3: 시청시간 ---------- -- 각각의 미디어에 대해, 가족 중 한명 이상과 같이 보는 경우와 혼자보는 경우와 나누어 각 기기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몇 분 정도 영상을 보는지 적어주세요.	
스마트폰	① 있다 → 가정 내 총( )대 ② 없다	1	2	3	4	5	6	같이	혼자
		항상 혼자 본다	대체로 혼자 본다	혼자 보는 정도와 함께 보는 정도가 비슷하다	대체로 함께 본다	항상 함께 본다	TV 를 시청하지 않는다	____분	____분
타블렛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① 있다 → 가정 내 총( )대 ② 없다	1	2	3	4	5	6	같이	혼자
		항상 혼자 본다	대체로 혼자 본다	혼자 보는 정도와 함께 보는 정도가 비슷하다	대체로 함께 본다	항상 함께 본다	TV 를 시청하지 않는다	____분	____분
노트북 컴퓨터	① 있다 → 가정 내 총( )대 ② 없다	1	2	3	4	5	6	같이	혼자
		항상 혼자 본다	대체로 혼자 본다	혼자 보는 정도와 함께 보는 정도가 비슷하다	대체로 함께 본다	항상 함께 본다	TV 를 시청하지 않는다	____분	____분

3.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영상물 시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3-1. 영상물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어느 정도 함께 시청하나요?
각 선택 항목을 주의해서 읽은 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3-1A. **아버지**와 시청하는 정도	3-1B. **어머니**와 시청하는 정도
① 전혀 함께 시청하지 않는다	① 전혀 함께 시청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함께 시청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함께 시청하지 않는다
③ 가끔 함께 시청한다	③ 가끔 함께 시청한다
④ 대개 함께 시청한다	④ 대개 함께 시청한다
⑤ 항상 함께 시청한다	⑤ 항상 함께 시청한다
⑥ 해당없음	⑥ 해당없음

3-2. 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프로그램 시청 **도중**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한다	해당없음
3-2A	아버지와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1	2	3	4	5	6
3-2B	어머니와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1	2	3	4	5	6

3-3. 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난 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프로그램 시청 **후**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한다	해당없음
3-3A	아버지와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1	2	3	4	5	6
3-3B	어머니와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1	2	3	4	5	6

4. **하루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만일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숫자 "0"을 사용해 "0"시간 "0"분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4A.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대략 일주일에 _____시간 _____분

4B. 어버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대략 일주일에 _____시간 _____분

5. **가족구성원과 함께 하는 영상 시청이 어떠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프로그램 내용이나 등장인물은 가족에게 대화 소재를 제공한다.	1	2	3	4	5
5-2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느끼는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공유한다.	1	2	3	4	5
5-3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1	2	3	4	5
5-4	가족 구성원과 어떤 일을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1	2	3	4	5
5-5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1	2	3	4	5
5-6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함께 학습한다.	1	2	3	4	5
5-7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상호 질문과 응답의 기회를 갖는다.	1	2	3	4	5
5-8	가족 유대감 및 친밀감을 향상시킨다.	1	2	3	4	5
5-9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기능한다.	1	2	3	4	5
5-10	중요한 사회 변화에 대한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6. 다음은 귀하 자신의 성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어진 표현이 귀하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외향적이고 활달하다	1	2	3	4	5
6-2	잘 다투고 까다롭다	1	2	3	4	5
6-3	성실하고 자기절제력이 있다	1	2	3	4	5
6-4	쉽게 불안해하고 분노한다	1	2	3	4	5
6-5	내성적이고 조용하다	1	2	3	4	5
6-6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다양함을 추구한다	1	2	3	4	5
6-7	동정심이 많고 따뜻하다	1	2	3	4	5
6-8	어수선하고 부주의하다	1	2	3	4	5
6-9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하다	1	2	3	4	5
6-10	개방적이지 않고 튀지 않는다	1	2	3	4	5

7. 다음은 귀하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는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7-1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7-2	나는 내 문제를 잘 해결하는 편이다	1	2	3	4	5
7-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존경하는 어른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7-4	나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8. 다음은 귀하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장을 잘 읽고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나는 친구들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1	2	3	4	5
8-2	나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1	2	3	4	5
8-3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1	2	3	4	5
8-4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1	2	3	4	5
8-5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상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1	2	3	4	5
8-6	나는 내 자신을 말이나 표정, 몸짓 등으로 잘 표현한다.	1	2	3	4	5
8-7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1	2	3	4	5
8-8	내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	1	2	3	4	5
8-9	내가 대화할 때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	1	2	3	4	5
8-10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1	2	3	4	5
8-11	나는 대화 도중 상대방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1	2	3	4	5
8-12	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있다는 것을 말이나 고갯짓으로 알린다.	1	2	3	4	5
8-13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9. 다음은 <u>귀하의 학업 및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u>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채 떠밀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1	2	3	4	5
9-2	성적이 나빠 부모님께 꾸중이나 벌을 받는다	1	2	3	4	5
9-3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9-4	부모님이 나의 성적을 남과 비교한다	1	2	3	4	5
9-5	공부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	1	2	3	4	5
9-6	내 성적을 보시고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걱정이 된다	1	2	3	4	5
9-7	나는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부한다	1	2	3	4	5
9-8	부모님이 학원이나 과외를 억지로 시키신다	1	2	3	4	5

10. 다음은 귀하가 아버지, 어머니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안 함	거의 안함	보통	자주	매우 자주	해당 없음
10-1a	나는 **아버지께** 이유나 설명없이 돈을 달라고 말한다.	1	2	3	4	5	6
10-1b	나는 **어머니께** 이유나 설명없이 돈을 달라고 말한다.	1	2	3	4	5	6
10-2a	**아버지가** 무엇을 하자고 제안했을때 나는 흔쾌히 따르겠다고 말한다.	1	2	3	4	5	6
10-2b	**어머니가** 무엇을 하자고 제안했을때 나는 흔쾌히 따르겠다고 말한다.	1	2	3	4	5	6

☞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내용	안 함	거의 안함	보통	자주	매우 자주	해당 없음
10-3a	**아버지와** 나는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눈다.	1	2	3	4	5	6
10-3b	**어머니와** 나는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눈다.	1	2	3	4	5	6
10-4a	나는 내가 가진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한다.	1	2	3	4	5	6
10-4b	나는 내가 가진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어머니와** 이야기한다.	1	2	3	4	5	6
10-5a	나는 **아버지께** 나의 매우 비밀스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1	2	3	4	5	6
10-5b	나는 **어머니께** 나의 매우 비밀스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1	2	3	4	5	6
10-6a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와** 대화한다.	1	2	3	4	5	6
10-6b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와** 대화한다.	1	2	3	4	5	6
10-7a	나는 **아버지께**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1	2	3	4	5	6
10-7b	나는 **어머니께**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1	2	3	4	5	6
10-8a	나는 나의 중요한 결정사안에 대해 **아버지와** 상의한다.	1	2	3	4	5	6
10-8b	나는 나의 중요한 결정사안에 대해 **어머니와** 상의한다.	1	2	3	4	5	6
10-9a	나는 **아버지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	1	2	3	4	5	6
10-9b	나는 **어머니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	1	2	3	4	5	6
10-10a	나는 용돈을 받고 나면 **아버지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0-10b	나는 용돈을 받고 나면 **어머니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0-11a	나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1	2	3	4	5	6
10-11b	나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어머니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1	2	3	4	5	6
10-12a	나는 **아버지와** 그날의 컨디션에 대해 이야기 한다.	1	2	3	4	5	6

☞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내용	안함	거의 안함	보통	자주	매우 자주	해당 없음
10-12b	나는 **어머니와** 그날의 컨디션에 대해 이야기 한다.	1	2	3	4	5	6
10-13a	나는 **아버지께** 때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한다.	1	2	3	4	5	6
10-13b	나는 **어머니께** 때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한다.	1	2	3	4	5	6

11. 다음은 귀하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귀하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안함	거의 안함	보통	자주	매우 자주	해당없음
11-1a	**아버지는** 완고해서 내 말을 잘 듣지 않으신다.	1	2	3	4	5	6
11-1b	**어머니는** 완고해서 내 말을 잘 듣지 않으신다.	1	2	3	4	5	6
11-2a	**아버지는** 나를 칭찬해주신다.	1	2	3	4	5	6
11-2b	**어머니는** 나를 칭찬해주신다.	1	2	3	4	5	6
11-3a	**아버지는** 나에게 유익한 충고를 많이 해주신다.	1	2	3	4	5	6
11-3b	**어머니는** 나에게 유익한 충고를 많이 해주신다.	1	2	3	4	5	6
11-4a	**아버지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신다.	1	2	3	4	5	6
11-4b	**어머니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신다.	1	2	3	4	5	6
11-5a	**아버지는** 권위를 잘 내세우지 않으신다.	1	2	3	4	5	6
11-5b	**어머니는** 권위를 잘 내세우지 않으신다.	1	2	3	4	5	6
11-6a	**아버지는** 나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차 있다.	1	2	3	4	5	6
11-6b	**어머니는** 나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차 있다.	1	2	3	4	5	6
11-7a	나는 **아버지께** 공손히 행동해야겠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1-7b	나는 **어머니께** 공손히 행동해야겠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1-8a	나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내용	안함	거의 안함	보통	자주	매우 자주	해당없음
11-8b	나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1-9a	나는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아야 한다.	1	2	3	4	5	6
11-9b	나는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아야 한다.	1	2	3	4	5	6
11-10a	나는 **아버지와** 대체로 말이 통한다.	1	2	3	4	5	6
11-10b	나는 **어머니와** 대체로 말이 통한다.	1	2	3	4	5	6
11-11a	나는 **아버지께** 변명을 많이 해야 한다.	1	2	3	4	5	6
11-11b	나는 **어머니께** 변명을 많이 해야 한다.	1	2	3	4	5	6
11-12a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6
11-12b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6

12.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응답 결과는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12-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12-2. 귀하의 형제관계는?

① 없음
② 남동생
③ 여동생
④ 오빠/형
⑤ 언니/누나

12-3. 귀하의 나이는: (　　)세

12-4. 귀하의 학년은:

① 중 1

② 중 2

③ 중 3

12-5.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총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12-6. 귀하의 가정 경제적 형편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하

② 중하

③ 중상

④ 상

12-7.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는?

① 나는 부모님과 모두와 함께 살고있다.

② 나는 아버지와만 함께 살고있다.

③ 나는 어머니와만 함께 살고있다.

④ 나는 부모님 두분 모두와 따로 살고있다.

12-8.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현재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① 두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

② 별거중이시다.

③ 이혼하셨다.

④ 사별하셨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Modern co-viewing as a proven mechanism for family communic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JinHee Lee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ay we have used the media has substantially changed over the past decade. We no longer need to go home to watch television. We are now able to carry media devices at any location, and easily decide when to watch the visual contents. The term co-viewing has been traditionally used to describe family members watching TV together. However, modern co-viewing is associated with all kinds of visual contents including TV content via multiple media platforms. We do not have to share a television with our families anymore. Instead, we can use multiple platforms to view our desired shows. We could share the interesting video with the family members if we want to. Watching TV is not considered time spent with family anymore. It will rather be a personal time consuming activity, which means members are more likely to spend time alone. This change could be problematic, because adolescents are not spending enough time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are not learning the values that they are supposed to know under the natural setting of family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typ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based on the change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Two different dimension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are classified, which are instrumental communication and relational communication. Instrumental communication is defined as communication style that is to fulfill one's need. On the other hand, relational communication involves with a lot of affection, shared values, mutual trust, bonds, support and understading. This study captures the implication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 terms of media use, specifically visual contents viewing style.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change in co-viewing environment influences child's communication skill,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a sample of 161 adolescents and one of their parents. Results reveal that co-viewing has led to higher levels of child's communication skill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atisfaction. Furthermore, relational communication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rent-child communication satisfaction, while instrumental communica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Most importantly,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al communication on co-viewing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These analysis results the great effect co-viewing has on family. The role it has in developing a child's communication skills and values. It also implies that co-viewing can be the glue that sticks families together. This paper re-examines the positive aspects of family co-viewing together resulting into greater family bond and values. These results help suggests guidelines that are beneficial to family members from the media usage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s.

Keywords: visual contents viewing style, screen media usage, modern co-view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parent-child communication satisfaction

Student Number: 2011-23157